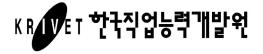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강경종 김종우 홍광표 윤 성 엄준용 김민경



머리말

인적자원개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원은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책과연구를 주도해 나아갈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훈련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그리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 원은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 추진을 3 단계로 계획하고 올해를 동향분석사업의 확립단계로 설정하여 내실 있고 질적 인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향정보팀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 및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자료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통계(지표)집 발간, 기관 홈페이지에 인적자원개발 동향분 석 콘텐츠 제공, 정책이슈 발굴 및 이슈페이퍼 작성, 그리고 기타 우리 원 연구 사업 관련 동향 및 정책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동향정보팀이 기관 홈페이지에 탑재한 매월 인적 자원개발 동향분석을 비롯하여, 정량적 자료의 입수 및 탑재, 정성적 자료를 바 탕으로 한 정책분석. 기관 동향지의 발간 등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기본사업 2005-1번으로 진행되었으며, 강경종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종우, 홍광표, 윤성, 엄준용, 김민경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자문회의를 통해 도움을 주신 원내외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2005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cdot 1$

제2절 사업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3

제2장 사업추진실적

제1절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 9

제2절 THE HRD REVIEW 발간·17

제3절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 26

제4절 NHRD-Net 자료제공·32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제1절 추진방향・35

제2절 주요 연구내용・37

제3절 기대효과 • 38

<부록 1>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KRIVET 홈페이지 탑재)·41

- 교 육·41
- 직업훈련 · 55
- 노동시장 ⋅ 66

<부록 2>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 74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추진방향 • 74

<부록 3>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자료분석 예시 • 85

• 이공계 인력 육성 · 지원 기본계획 · 85

<부록 4>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 •95

• 10월 1일 ~ 10월 31일 · 95

<부록 5>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 • 100

<부록 6> 만족도 조사 설문지 · 121

<표목차>

<표 Ⅰ-1> 매월 동향분석의 구성과 내용・4

- <표 II-1> 콘텐츠(contents)별 접속 통계(2005. 2. 1~2005. 11. 30)·10
- <표 Ⅱ-2> 제8권1호 구성・18
- <표 Ⅱ-3> 제8권2호 구성・19
- <표 Ⅱ-4> 제8권3호 구성・20
- <표 Ⅱ-5> 제8권4호 구성・21
- <표 Ⅱ-6> 응답자의 소속기관・22
- <표 Ⅱ-7> THE HRD REVIEW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복수응답 포함) · 23
- <표 Ⅱ-8> 구독 목적에 비추어 본 만족도(5점 척도) · 23
- <표 Ⅱ-9> 주제들의 시의 적절성(5점 척도) 24
- <표 Ⅱ-10> 내용 구성에 관한 만족도(5점 척도) 24
- <표 Ⅱ-11> 가장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복수응답) 25
- <표 Ⅱ-12> 각 구성분야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26
- <표 Ⅱ-13> 편집체계 및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 26
- <표 II-14> 분야별 담당자·27
- <표 Ⅱ-15> 영역별 세부지표 업데이트 현황 27
- <표 Ⅱ-16> 메뉴별 정보제공 현황(2005, 11, 30 기준)・32

[그림목차]

- [그림 Ⅱ-1] 분야별 동향분석 탑재 화면·10
- [그림 Ⅱ-2] 이슈분석 탑재 화면・12
- [그림 Ⅱ-3]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탑재 화면·14
- [그림 Ⅱ-4] 인적자원개발일지 탑재 화면・15
- [그림 Ⅱ-5] 인적자원개발통계 탑재 화면・16
- [그림 Ⅱ-6] NHRD동향 자료 탑재 화면·33

[요약]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제1차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5년차까지 시행되면서 정부 각 부처별 다양한 인적자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정부 각 부처별 인적 자원개발 관련 정책과 이슈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분 석의 필요성 증대
□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정보, 연 구정보, 통계정보, HRD Index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필요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현안 정리 및 이슈 메이커 로서의 기능 수행 필요
□ 원내 연구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초분석 지 원의 필요
□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메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성 점증
나. 사업의 목적
□ 첫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통계 구축 시스템 마련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확보해야할 기초자료 인프라 구축
□ 셋째,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 및 업데이트
□ 넷째, 시의성 있는 동향 및 정책자료의 생성
다. 사업의 기본구조 및 내용
 □ 인적자원개발 동항분석 연구사업은 도입・확립・발전의 3단계 계획하에 본원의 상시적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 중임. - 도입단계(2004년도): 동향정보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팀원간 영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올 하반기에 원내연구진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을 평가하고, 이를토대로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 수정 및 보완 - 확립단계(2005년도): 동향정보팀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고, 보다내실 있고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드로 전환 - 발전단계(2006년도 이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도하고, 대정부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니즈를 수용하여 동향정보팀이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 수행
□ 본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원내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원내 사업과, 원외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을 위한 원외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

□ 동향분석사업의 확립단계인 2005년도에는 크게 영역을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최관련 정책·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그리고 '이슈페이퍼 작성' 등 4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THE HRD REVIEW」,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의 발간 KRIVET 홈페이지 및 NHRD-Net에 콘텐츠 제공, 원내 서버에 통계청, 노동부 등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및 각종 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축을 통한 원내 연구자들의 이용 기반 구축 등의 관련 업무 추정	백 그 근 나, 통
2. 사업추진실적	
가.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 매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분야별 동향분석, 이슈분석,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등의 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에게 관련 정 보 제공	=
□ 기관 홈페이지의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에 관련한 콘텐츠(contents에 접속한 건수는 3월 이후부터 매월 꾸준히 7,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나. THE HRD REVIEW 발간	
□ 연초 분기별 발간을 목표로 설정한 THE HRD REVIEW 발간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분기별 발간이 잘 수행되고 있음.	1

□ THE HRD REVIEW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결과 현시점에서의 주요 이슈파악에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인적자원 개발동향이 48.7%로 나타나 기관을 대표하고 인적자원개발의 동향 을 전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됨.
다.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및 NHRD-Net 자료제공
□ 2005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팀회의를 통해 파악한 인적자원개발관련 각종 자료를 NHRD-Net 의 NHRD동향, NHRD통계, NHRD자료실, RHRD 등에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가. 주요내용
□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매월 분야별(교육·직업훈련·노동시장) 동향 파악 및 이슈 발굴과 관련 data수집·분석 THE HRD REVIEW 의 발간, 기관 홈페이지 및 NHRD-Net 콘텐츠 제공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 원내 각종 연구에 사용된 각종 설문조사의 DB구축 및 제공을 통해 기타 분석에의 활용

□ 패널스터디시리즈 발간
□ HRD백서 발간
나. 기대효과
□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와 판단자료 제공
□ 본원의 각종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입수경로 체계화 및 연구관련 기초 통계의 제공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적자원개발정보 및 흐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기능
□ 인적자원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정리 및 이슈메이커로서의 기능 수 행을 위한 토대 제공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2001년도 제1차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5년차까지 시행되면 서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인적자원 정책이 수립, 집행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정부 각 부처별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과 이슈 및 관련 통계 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됨.
- 또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정보, 연구정보, 통계정보, HRD Index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의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 관련 현안 정리 및 이슈 메이커로서 기능 수행 이 점차 필요함. 이러한 이유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많은 이슈들이 정부 내・외 조직에서 생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차원, 보다 내부적으로

2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는 우리 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원은 인적자원정책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원내연구사업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및 연구·정책자료 및 분석이 필요함.
-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메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증됨.

2. 사업의 목적

- 첫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통계 구축 시스템 마련
-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확보해야할 기초자료 인 프라 구축
- ㅇ 셋째,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 및 업데이트
- ㅇ 넷째, 시의성 있는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생성

제2절 사업의 기본구조 및 주요 내용

1. 사업의 기본 구조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은 도입·확립·발전의 3단계 계획 하에 본원의 상시적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체계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동향 정보팀 고유 업무의 정착과 팀원들의 연구 및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원내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음.
 - 도입단계(2004년도): 동향정보팀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팀원간 영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개발 동향분석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수정 및 보완
 - 확립단계(2005년도): 동향정보팀의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고, 보다 내실 있고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모드로 전환
 - 발전단계(2006년도 이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도하고, 대정부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요구들을 수용하여 동향정보팀이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 수행

2. 사업의 세부 내용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원내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초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원내 사업과, 원외 연구
 자 및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을 위한 원외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사업은 크게 영역을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체계

4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정책·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그리고 '이슈페이퍼 작성' 등 4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THE HRD REVIEW」,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의 발간, KRIVET homepage 및 NHRD-Net에콘텐츠 제공, 원내 서버에 통계청, 노동부 등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및 각종 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축을 통한 원내 연구자들의 이용 기반 구축,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능원 연구결과의 대외 홍보 등의 산출물을 생성

o 매월 동향분석: KRIVET 홈페이지(homepage)에 탑재

<표 [-1> 매월 동향분석의 구성과 내용

목 차	내 용
인적자원개발 동향	노동분야, 직업훈련분야, 교육분야의 동향을 월단위로 정리
인적자원개발 이슈 분석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정책 중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안 분석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연구발간물 등을 종합ㆍ요약
인적자원개발 일지	정부(국가, 지자체)와 기관(교육 및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보도 자료나 발표를 종 합·정리(1주 단위 정리, 팀회의에서 보고), 홈페이지에는 웹정보시 스템 가동으로 매일 탑재
인적자원개발 통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 통계. 1개월 단위로 정리

- o THE HRD REVIEW 발간
 - 1) 발간 현황: 계간호로 3, 6, 9, 12월에 발간(제8권1호~4호)
 - 2) 편집위원 구성
 - 편집위원장: 김형만
 - 편집위원: 정택수, 나영선, 장홍근, 김철희, 강경종
- 본 연구사업의 세부내용은 사업영역의 틀 안에서 재구조화함으로써 첫째로 노동시장·직업훈련·교육·평가·자격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둘째로 인적자원개발 동향 관련분기별 THE HRD REVIEW 발간, 셋째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05 발간, 넷째로 이슈페이퍼 및 정책페이퍼 생성, 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 정책·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

3. 사업의 방법

- 동향지 편집위원회 개최, 동향지 간담회, 정례적인 주 단위 동향분석회의
 동향지 편집위원회는 매 동향지 발간시 2회 개최, 동향지 간담회는 월
 1회 개최, 이 외에 연구진들이 인적자원개발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인적자원개발 일지 등을 주 단위로 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한 주간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향분석 및 주요 이슈를 발굴
-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 및 행정통계의 체계적 수집, 가공, 분석,
 - 노동시장 관련 국가 및 행정통계
 - 통계청 추계인구(5년), 인구이동통계(월), 경제활동인구조사(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년 2회), 한국의 사회지표(년)
 -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년), 사업체근 로실태조사(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년),

소규모업체근로실태조사(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년)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년)
-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가 및 행정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년), 교육통계편람(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년),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교육(년), OECD교육지표 (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발전지표(년)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년)
 - ·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 HRD-Net 통계(월),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 인적자원개발 관련 대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매월 단위로 주기적 인 협의회(가칭 인적자원개발 동향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
 - 이를 통해서 전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에 걸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자 간 주기적인 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
- ㅇ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처의 담당자와 주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측 니즈(needs)를 파악
 - 동향분석자문회의를 통해 국가통계 및 정부 행정통계, 정책 자료의 신 속한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ㅇ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주요 이슈 실태 파악

- 노동 및 교육문제 등 우리 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현안 발생 시 신속 하게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 주제별 실태 파악 및 자료 확보

ㅇ 국내외 출장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동향 파악
- 외국 주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제공기관(OECD 內 위원회 등)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정보 및 자료 수집

제2장 사업추진실적

제1절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 매월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분야별 동향분석, 이슈분석,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개발 통계 등의 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에게 관련 정보 제공
- 기관 홈페이지 재정비(remodeling) 이후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에 관련 한 콘텐츠(contents)에 접속한 건수는 3월 이후부터 매월 꾸준히 7,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각 자료 중 분야별 동향분석 자료가 가장 많은 접속건수를 기록해 월 간 동향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이슈분석과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도 분석기간 중 12,000건 이상의 접속을 보이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음.

<표 II-1> 콘텐츠(contents)별 접속 통계(2005. 2. 1~2005. 11. 30)

(단위: 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계
교육훈련고용동향	2,463	2,994	2,623	3,044	3,028	2,891	3,804	2,637	3,370	3,497	30,351
이슈분석	653	911	1,083	1,090	1,082	1,194	2,167	1,435	1,513	1,268	12,396
정책/연구자료분석	827	1,425	1,503	1,800	2,003	1,805	2,653	1,945	2,215	2,138	18,314
인적자원개발 일지	356	956	893	841	829	795	1,772	685	809	690	8,626
인적자원개발 통계	477	746	743	861	843	581	1,755	714	996	909	8,625
소계	4,776	7,032	6,845	7,636	7,785	7,266	12,151	7,416	8,903	8,502	78,312

- 1. 분야별(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분석
- 매월 분야별(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분석을 실시하고 KRIVET 홈페이지의 교육/훈련/고용동향에 탑재

[그림 Ⅱ-1] 분야별 동향분석 탑재 화면



2. 이슈분석

- 매주 2회의 동향정보팀 회의를 통해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슈분석을 작성해 KRIVET 홈페이지에 탑재
- 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 등 총 21건의 자료 탑재
 - 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
 - 초중등 교육단계에서의 기본 능력 함양과 인적자원개발
 - 여성 인적자원의 현황과 정책방향
 - 초중등-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인력수급전망체제 구축
 -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 성인의 계속교육체제 구축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방향
 - 지식서비스분야 인력개발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영재교육
 - 이공계 핵심인력 양성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 중소기업 컨소시엄 확대방안
 - 싱가포르의 People Developer 현황과 방향
 -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추진방향
 -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방안
 - 주요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 주5일 근무제 시행 1년과 직업능력개발
 - 지역 인재채용의 활성화
 - 학제개편과 인적자원개발

[그림 Ⅱ-2] 이슈분석 탑재 화면



3. 정책/연구자료 분석

- 매주 2회의 동향정보팀 회의를 통해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 · 연구자료 분석을 작성해 KRIVET 홈페이지에 탑재
- 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등 총 26건의 자료 탑재
 - 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성장산업 기술자 집중 양성
 - 실업계 특성화고 확대 및 직업교육 지원 주체 다원화

-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 인적자원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e-Learning 분야의 연구 동향과 시사점
- 저학력/저숙련 계층 성인학습 증진을 위한 과제
- 유럽 국가의 자격 상호인정 동향
- 미국의 인력개발시스템 개혁
- 영국 직업교육 개혁 동향: 14~19 개혁
- 군 인적자원개발의 추진 배경과 발전 동향
- IT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Skill framework: 영국 SFIA 사례를 중심으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시행과 과제
- 최근의 인력수급전망 연구동향
- 직업진로지도 관련 연구 동향
- 교육인적자원분야 미래 전략
- 지식-인적자원강국 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분야 미래전략
- 軍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도입과 주요 과제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관련 연구동향
- 도전 2008, 대만의 국가발전 6개년 계획
- 인적자본이 성장의 열쇠 -2020의 성공 사례와 정책(한국, 스페인)-
-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방향
- 산학협력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 21세기 지식경제 세계에서의 직업교육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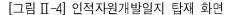


[그림 Ⅱ-3] 정책 및 연구자료 분석 탑재 화면

4. 인적자원개발 일지

- 매일 수집된 자료 중 팀회의를 통해 정부(국가, 지자체)와 기관(교육 및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제시 하는 보도 자료나 발표를 종합·정리 각종 자료로 가공하는 기초를 제공
- 시의성 확보를 위해 매일 웹(web)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수집된 정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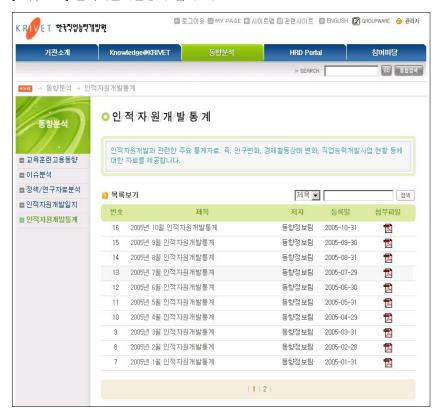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서 매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및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16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 5.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
 - 월별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통계를 수집 가공해 KRIVET 홈페이지에 탑재

[그림 Ⅱ-5] 인적자원개발통계 탑재 화면



제2절 THE HRD REVIEW 발간

- 1. 편집위원회 개최
- 동향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해 발간계획 수립 및 일정 수립
 - -제1차 동향지 편집위원회(2005. 2. 21)
 - 연간 발간계획 수립
 - 발간 절차 결정
 - 제8권1호의 특집주제 선정 및 내용구성
 - -제2차 동향지 편집위원회(2005. 3. 18)
 - 제8권1호 게재 원고 검토
 - -제3차 동향지 편집위원회(2005.4. 29)
 - 제8권1호 검토
 - 제8권2호의 특집주제 선정 및 내용구성
 - 관련부처 동향 및 지역 동향 신설 결정
 - -제4차 동향지 편집위원회(2005. 7. 4)
 - 제8권2호 검토
 - 제8권3호의 특집주제 선정 및 내용구성
 - -제5차 동향지 편집위원회(2005. 10. 13)
 - 제8권3호 검토
 - 제8권4호의 특집주제 선정 및 내용구성
- 2. THE HRD REVIEW 분기별 발간(제8권1호~제8권4호)
- 2005년 3월 31일 제8권1호 발간
 -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며 계간지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1/4분 기에 맞춰 발간

<표 Ⅱ-2> 제8권1호 구성

구	분	주 제	소 속	집필자
(특집) 제2차 인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교수	김신복
		정책변화에 따른 인적자워개발정책 핵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김광조
발기	ㅏ원개 ↑본계 수립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형만
	1 1 11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고려 사항	인덕대학 교수	김환식
		교육동향	동향정보팀	엄준용
		직업훈련동향	동향정보팀	홍광표
		노동시장동향	동향정보팀	김민경
이적	정책	참여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이병욱
자원	동향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고용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고혜원
개발 동향	연구 동향	e-Learning 연구 주제의 경향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권성연
0 0		유럽연합 국가의 자격 상호인정 동향 및 특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상진
	해외	미국의 인력투자법 시스템과 직업훈련 전 달체계의 개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나영선
	동향	영국의 직업교육개혁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박윤희
연구논단		지역혁신과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
		청년층 첫직장 이행기간에 대한 학력과 전 공선택의 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미란
인적자원개 발일지			동향정보팀	
인적자원개 발통계			동향정보팀	

- 2005년 6월 30일 제8권2호 발간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인적 자원개발관련 정책 동향을 신설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보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 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동향을 신설

<표 Ⅱ-3> 제8권2호 구성

		Т		
구	분	주 제	소 속	집필자
(특	집)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방향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강신욱
고령화 사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연
회와 인적		중·장년층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손유미
자원7	H발	고령층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과제	숭실대학교 교수	기영화
		교육동향	동향정보팀	엄준용
		직업훈련동향	동향정보팀	홍광표
		노동시장동향	동향정보팀	김민경
		군 인적자원개발의 추진경과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정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숙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	김관복
	정책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추진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정책과	류혜숙
	동향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1 11-2-
		-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노동부 훈련정책과	이재흥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20.100.20.12.00.1	
인적 자원		-산업기술인력정책 방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남경모
	I - I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새로운	원그가서노러게비이 서그이이	2) 2) 0)
개발		접근방법의 모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장창원
동향		평생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방향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최동선
		탐색	안시작업등학계될런 신문선무현	의당신
	해외 동향	OECD 국가들의 저학력·저숙련 계층을	주 OFCD 한국대표부 노무과	정형우
		위한 성인학습의 과제	T OECD 전국네표는 조구한	7887
		영국 IT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Skill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주인중
		Framework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김상호
		부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연구위원	김영근
	지역	대구·경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대구경북연구워 연구위워	이석희
	동향	과제	पारित्र स्तिस स्तिस	기격의
	2.0	충청북도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충북개발연구워 연구위워	김진덕
		과제	रुप्ताव्यास्य सम्मर्ख	石센틱
연구논단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작업조직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장홍근
		숙련형성	한 가 그 밥이 가게 할 한 한 1 개 한	000
립	ㄴ낸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강경종
		e-Learning 지원방안	인국의 대한국/기를 한 전기되면	70700
인적	, -		동향정보팀	
개발	_		0 0 0 1 1	
인적	, -		동향정보팀	
개발	통계		0 0 0 1 1	

- 2005년 9월 30일 제8권3호 발간
 - 확정된 체제하에서 계간지 성격을 유지하며 각 분기말에 발간
 - 기관의 각 센터(팀)의 연구 동향 지속 탑재
 - 기관 홍보를 위해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홍보

<표 Ⅱ-4> 제8권3호 구성

구	분	주 제	소 속	집필자
특취 (대학		대학혁신의 과제와 전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현청
	집 ·혁신	대학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 추진단 단장	김경회
과 인 원개별	<u>[</u> 적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지원체제 및 인프라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
		선진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현석
		교육 동향	동향정보팀	엄준용
		직업훈련 동향	동향정보팀	홍광표
		노동시장 동향	동향정보팀	김민경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추진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김관복
	정책 동향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과학기술 인력정책방향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구수정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노동부 훈련정책과	이정한
인적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년과 인적자원개발의 함의	(주)KDN 대표이사	이정렬
고 자원 개발 동향	연구 동향	산학협력 동향과 향후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수원
동향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따른 실업계고 관련 후속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홍선이
	해외	싱가포르 People Developer 현황과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숙
	동향	주요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전경숙
		광주전남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광주전남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문경년
	지역 동향	경남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곽태열
		충남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 연구부장	송두범
연구논단		대학 진로지도와 고용서비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임 언
		지역 인재채용의 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종우
인적. 개발			동향정보팀	
인적 개발	자원 통계		동향정보팀	

- 2005년 12월 30일 제8권4호 발간
 - 분기별 발간을 목표로 연 4호의 동향지 발간 목표 완료
 - 제1권1호~제8권4호의 발간 리스트(총색인) 탑재를 통해 독자들이 찾고 싶은 원고를 찾기 쉽도록 편의 제공

<표 Ⅱ-5> 제8권4호 구성

구	분	주 제	소 속	집필자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과장	정순남
특집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와 HRD)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송완흡
		선진외국의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성공사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종선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HRD 전망과 과제	HRD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실정	
		교육 동향	동향정보팀	엄준용
		직업훈련 동향	동향정보팀	홍광표
인적		노동시장 동향	동향정보팀	김민경
	정생동향	고등교육 평가제도 도입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지원과	이대열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팀	이준희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여성 인력정책방향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인력개발과	인정숙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동향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	양동교
자원 개발	연구 동향	직업능력개발연구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숙
동향		패널조사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민주홍
	해외 동향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교육협력지원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장지순
		평생학습을 위한 외국의 개인훈련계좌제 시범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나영선
	지역 동향	강원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강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염돈민
		대전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대전 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정선기
		울산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울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은규
<u></u> 연	구	미국의 학문주의의 부흥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정체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진미석
논단		기업의 현장훈련실태와 정책적 추진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수원
인적자원 개발 일지			동향정보팀	
인적자원 개발 통계			동향정보팀	
HRD REVIEW 발간 목록		제1권1호~제8권4호	동향정보팀	

3. THE HRD REVIEW 독자 만족도 조사실시

- THE HRD REVIEW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유익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2005. 10. 17~2005. 10. 28
 - 조사대상: THE HRD REVIEW 발송자 전원

ㅇ 응답결과

- 응답자: THE HRD REVIEW의 발송자 4,411명 가운데 464명이 응답해 10.5%의 회수율을 보임.
-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소속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51.9%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18.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Ⅱ-6> 응답자의 소속기관

(단위: 명, %)

	응답자
정부 및 공공기관	85(18.3)
민간기관	38 (8.2)
교육기관	241(51.9)
직업훈련기관	76(16.4)
기타	24 (5.2)
합계	464(100.0)

- THE HRD REVIEW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물음에는 현시점에서의 주요 이슈파악에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정보의 습득에 유용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4%로그 다음으로 나타나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현 주요이슈 파악과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7> THE HRD REVIEW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복수응답 포함)

(단위: 명)

					(211. 0)
	정책정보의 습득	현 시점에서의 주요 이슈 파악	연구동향의 파악	학술정보의 습득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정보
정부 및 공공기관	14	32	23	8	20
민간기관	12	13	7	4	16
교육기관	64	94	42	22	52
직업훈련 기관	30	18	5	8	33
기타	6	6	4	2	4
합계	126(23.4%)	163(30.2%)	81(15.0%)	44(8.2%)	125(23.2%)

- 구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때 3.92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4.03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관이 3.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구독 목적에 비추어 본 만족도(5점 척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타	총 평균
평균	3.99	3.69	4.03	3.95	3.92	3.92

- 본 동향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이 시의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평균 3.92로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소속기관별로는 교육기관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관이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Ⅱ-9> 주제들의 시의 적절성(5점 척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타	총 평균
평균	3.95	3.68	4.02	3.85	4.08	3.92

- 내용구성에 관해서 응답자들은 3.91의 평가를 내려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에 가까웠음.
- 내용구성에 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4.00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관이 3.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Ⅱ-10> 내용 구성에 관한 만족도(5점 척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타	총 평균
평균	4.00	3.72	3.94	3.79	4.08	3.91

-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인적자원 개발동향이 48.7%로 절반가까이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을 대표하고 인적자원개발의 동향을 전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됨.
- 특집이슈 20.8%, 인적자원개발통계 13.4%, 연구논단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개발 일지가 4.1%로 관심부분에서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 가장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복수응답)

(다의 명)

					(セガ・る)
	특집이슈	인적자원개발 동향	연구논단	인적자원개발 일지	인적자원 개발통계
정부 및 공공기관	25	51	17	0	18
민간기관	8	28	12	4	12
교육기관	83	152	41	18	45
직업훈련 기관	14	78	12	3	10
기타	8	14	4	2	4
합계	138(20.8%)	323(48.7%)	86(13.0%)	27(4.1%)	89(13.4%)

- 각 구성분야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인적자원개발동향이 4.1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특집이슈가 3.94, 인적자 원개발통계가 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각 구성분야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3.85로 나타났으며, 모두 3.60 이상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 소속기관별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이 모두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각각 4.18, 4.27, 4.22, 4.02로 응답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2> 각 구성분야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특집이슈	인적자원 개발 동향	연구논단	인적자원 개발 일지	인적자원개 발통계	전체평균
정부 및 공공기관	4.01	4.18	3.96	3.68	3.92	3.95
민간기관	3.75	4.27	3.53	3.25	3.74	3.71
교육기관	4.18	4.22	3.61	3.61	3.82	3.89
직업훈련 기관	3.94	4.02	3.45	3.63	3.92	3.79
기타	3.83	4.17	3.83	3.83	3.83	3.9
전체평균	3.94	4.17	3.68	3.60	3.85	3.85

- 편집체계 및 디자인에 대해서는 3.65의 만족도를 보여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Ⅱ-13> 편집체계 및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기타	총 평균
평균	3.59	3.53	3.97	3.75	3.42	3.65

제3절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 2005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 업데이트 (update) 중
 - 타 기관의 통계자료의 시점을 파악하고 업데이트를 진행
 - 현재 119개 세부지표 중 60개 항목 업데이트(50.4% 진행률)

<표 Ⅱ-14> 분야별 담당자

분 야	담당자
편집 총괄	강경종, 김종우
I. 인적자원의 축적	김민경
Ⅱ. 인적자원의 개발(과정)	<u></u> 엄준용
Ⅲ. 인적자원의 이행	홍광표
Ⅳ. 인적자원의 활용	김민경
V. 인적자원 활용의 결과	홍광표
VI. 인적자원의 유출과 상실	윤 성

<표 Ⅱ-15> 영역별 세부지표 업데이트 현황

l. 인적자원의 축적(총 지표수: 18개)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1 인구규모	I -1	총인구 및 연평균 인구성장률	•
2 인구구조/분포	I -2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
	I -3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I -4	수도권 인구수 및 인구비율	•
	I -5	학령인구수	•
3. 인적 자원의수준	I -6	성 연령별 국민 평균교육년수	•
	I -7	국민의 학력구성비(25세이상)	•
	I –8	고등교육 기관별 학생수	•
	I -9	인구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여학생수	•
	I -10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분포	•
	I -11	계열별 학위(석사, 박사)취득자수	•
	I -12	국가기술자격검정현황	
	I -13	외국인 근로자 수 및 비율	
4. 국민보건	I -14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I -15	연령계급별 학생의 신장, 체중 및 신체중량지수	•
5. 국제지표	I -16	연령계층별 대학이상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I -17	외국인 노동력 및 고급기술인력	
	I -18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

Ⅱ. 인적자원의 개발 (과정)(총 지표수: 31개)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 330	∏-1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	•
1 공교육 (학교교육)	П-2	계열별 실업계고 입학자수	
(11 - 1)	П-3	전문대 계열별 입학자수	•
	П-4	교육기회 미충족비율 및 이유	미수행
	П-5	직업교육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수	•
	П-6	실업계고 학교유형별 교원1인당 학생수	•
	П-7	일반계고 대 실업계고 학생비율	•
	П-8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	•
	П-9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수	•
	П-10	실업계고 학교유형별 학교수	•
	П-11	실업계고 학교유형별 교실당 학생수	•
	П-12	전문대 및 산업대 학생1인당 강의실면적	•
	∏-13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П-14	기능대 및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1인당 연간 훈 련비 및 실습비	
2. 사교육	Ⅱ-15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16	분야별 사설학원 수강자수	•
3 사내교육	∐-17	교육수준별 취업자수	•
3 시대포작	П−18	입사이후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및 평균일수	조사 미수행
	∏-19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Ⅱ-20	기업의 교육훈련비용 추이	
	П−21	기업 규모별 교육훈련비	
4 직업훈련	П-22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인원수	
4 역립군인 및 평생교육	∏-23	실업계고 학생의 중도탈락률	•
	∏-24	기능 정도별 직업훈련 인원수	
	Ⅱ-25	직업교육 실시 일반계 고교학생수 및 비율	
	П-26	직업훈련실적	
	П-27	학교정보화	•
r 그레기 등	П-28	컴퓨터 사용능력	
5.국제지표	∏-29	교육의 경쟁사회의 요구 부합정도	
	П-30	인터넷 사용자수 및 보안 서버수	
	∏-31	PC 보급대수 및 인터넷 호스트수	

Ⅲ. 인적자원의 이행 (총 지표수: 17개)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_	, = ,	1177
1 진로지도	Ⅲ-1	국공립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수	•
및 취업 알선	Ⅲ-2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실적	•
	III-3	성별, 학력별 직업선택요인	
2 진급과 취업	Ⅲ–4	전문대 학생의 이동상황	•
	III-5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
	Ш-6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 수	•
3 졸업과 취업	Ⅲ-7	실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
School-to -Work	III-8	전문대 졸업자의 진학률	•
	III-9	산업대 졸업자의 진학률	•
	Ш-10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
	Ⅲ-11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전공분야 취업률	
	Ⅲ-12	기능대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
	Ⅲ-13	계열별실업계고 학생의 국가기술자격취득	•
	Ⅲ-14	전문대 학생의 국가기술자격취득	
	III-15	기능자격증 소지자 비율	•
4. 직업이동	III-16	산업별 이직률	•
	Ⅲ-17	취업알선률 및 구인배율	•

IV. 인적자원의 활용 (총 지표수: 24개)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1 고용과 실업	IV-1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1 - 0 7 - 2 1	IV-2	연령계층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IV-3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
	IV-4	직업별 취업자의 구성비	•
	IV-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전산업)	•
	IV-6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 연구원 비율	•
	IV-7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IV-8	성별, 산업별 고령취업자(55세이상)비율	
	IV-9	산업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전년대비)	•
	IV-10	연령계층별 실업자 수 및 구성비	•

30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2 여성 고용	IV-1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IV-12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
	IV-13	정부부분의 여성인력 비중	
	IV-14	성별, 산업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
3 근로조건	IV-15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	
	IV-16	산업별 월평균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
	IV-17	직종별 월평균임금수준 및 임금격차	
	IV-18	학력별 임금격차	
	IV-19	사업체 규모별 임금	
	IV-20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IV-21-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1	
	IV-21-2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2	
4.차별대우	IV-22	성차별에 대한 인식(2002)	
5.국제지표	IV-23	노동시장 · 기술적 효용	
D,녹세시표	IV-24	여성의 정치 참여(2001)	

<표계속>

V. 인적자원활용의 결과(총 지표수: 20)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1 경제적 기여	V-1	지적재산권의 등록건수	•
	V-2	노동소득분배율	
	V-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입 추이(전년 대비증가률)	
	V-4	소득 10분위별 분포 및 소득집중도(도시근로자 가구)	•
	V-5	노동생산성지수	•
2 사회적 기여:	V-6	생산구조	
사회적 자본 형성	V-7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태도	
	V-8	독서인구비율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3. 국가경쟁력	V-9	인구만명당 좌석수 및 장서수	
국제지표	V-10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인구1000명당 pc/인터넷도 메인수	
	V-11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V-12	국가별 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 평등기회지수	
	V-13	국가정보화지수	
	V-14-1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1	
	V-14-2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2	
	V-15	산업생산지수	
	V-16	과학환경지수	
4 인간개발지수	V-17	기술관리지수	
	V-18	지적재산권지수	
	V-19	인간개발지수	
	V-20	첨단기술수출	

VI. 인적자원의 유출과 상실 (총 지표수: 9개)

관심영역	표번호	개별지표	비고		
1 인적자원의 유출	인적자원의 유출 VI-1 인구 천명당 해외이민자수				
	VI-2	사망자수 및 사망률	•		
2 인적자원의 상실	VI-3	사인별 사망자수 및 구성비	•		
	VI-4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			
	VI-5	직업병 유병근로자비율	•		
	VI-6	산업재해 발생률, 강도율, 사망만인률	•		
	VI-7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			
	VI-8	경제활동인구대비 범죄자비율			
	VI-9	주요범죄자 수(소년범죄자 비율)			

주: ● - update 완료.

제4절 NHRD-Net 자료제공

- NHRD-Net은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 및 연구동향, NHRD관련 연구 · 정책보고서, NHRD통계자료(인적자원개발지표, HRD INDEX), 지역인적 자원개발(RHRD), 협력망 운영, 인적자원수급, 정책평가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 팀회의를 통해 파악한 인적자원개발관련 각종 자료를 NHRD-Net의 NHRD동향, NHRD통계, NHRD자료실, RHRD 등에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

<표 Ⅱ-16> 메뉴별 정보제공현황(2005. 11. 30 기준)

	메뉴	내용	탑재건수
인적지	원개발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자료	36건
NHRD 동향	연구동향 정책동향 해외동향 지표로본 동향	연구기관 자료 관련부처 정책동향 국외연구기관 등 연구동향 인적자원관련 통계자료 외	312건 982건 76건 41건
NHRD 통계	인적자원개발지표 HRD INDEX	_	6개 영역 121개 항목 6개 영역 19개 항목
NHRD 자료실	행사자료 연구/정책보고서 국내외저널 HRD DB 전문가 POOL	원내외 관련행사 자료 인적자원관련 각종 연구정책보고서 인적자원관련 저널기사목록 - -	81건 1,427건 94개 저널의 15,424건 7개 과제 1,395명
RHRD	DB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관련자료	30건
제2차기본계획수립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책평가 인적자원수급		전문가위원회 등 관련자료 정례토론회, Workshop 등 회의자료 추진실적평가, 투자분석 관련자료 인력수급 관련자료	24건 50건 30건 28건

[그림 II-6] NHRD동향 자료 탑재 화면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제1절 추진방향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은 도입・확립・발전의 3단계 계획 하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2006년도 이후 발전단계에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도하고, 대정부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요구들을 수용하여 동향정보팀이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o 정례적인 동향분석회의
 - 인적자원개발관련 주요 정책 및 이슈, 인적자원개발 일지 등을 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한 주간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발굴
-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 및 행정통계의 체계적 수집, 가공, 분석
-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인적자원개발 관련 대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매월 단위로 주기적 인 협의회(가칭 인적자원개발 동향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 등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
- 이를 통해서 전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에 걸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자 간 주기적인 정보의 공유체계를 구축
- 관련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처의 담당자와 주기적인 연락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측 니즈(needs)를 파악
 - 동향분석자문회의를 통해 국가통계 및 정부 행정통계, 정책자료의 신 속한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정부부처의 해외 통신원 및 국제기구 파견자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주요 이슈 실태 및 설문조사 실시
 - 노동 및 교육문제 등 우리 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현안 발생 시 신속 하게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 주제별로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 2회의 실태조사를 실시
- 0 패널스터디시리즈
 - 원내 구축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3개월 단위의 총 10여개의 소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작성
- ㅇ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전문가 초빙 토론회 개최 등

○ 해외출장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동향 파악
- 외국 주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제공기관(OECD 內 위원회 등)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정보 및 자료 수집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매월 분야별(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 파악 및 이슈 발굴
- 분야별(교육·직업훈련·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관련 수집 data의 가공 및 제공
- 원내 각종 연구에 사용된 각종 설문조사의 DB구축 및 제공을 통해 기타 분석에의 활용
- THE HRD REVIEW 발간 및 주요 인적자원개발 동향 게재
- ㅇ 정책제안, Working Paper 및 Issue Paper 작성 등
- o 기관 홈페이지 및 NHRD-net의 콘텐츠 상시 제공
- ㅇ 패널스터디시리즈 발간
-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06 발간
- o HRD백서 발간

제3절 기대효과

- ㅇ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와 판단자료 제공
 -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정보인프라로서 인력양성 및 고용정책을 포함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본원의 각종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입수경로 체계화 및 연구관련 기초 통계의 제공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흐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분석 기능
 - 매월 동향 분석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데이터(data)의 기관 홈페이지 와 NHDR-Net 탑재, 제공
- 인적자원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정리 및 이슈메이커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토대 제공

<부 록>

<부록 1>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 (KRIVET Homepage 탑재)

<부록 2>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부록 3>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자료분석 예시

<부록 4>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

<부록 5>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

<부록 6> 만족도 조사 설문지

<부록 1>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예시(KRIVET Homepage 탑재)

교 육

__ 〈목 차〉

- 1. 정책 동향
- 2. 직업교육 동향
- 3. 해외 동향

1. 정책 동향

◈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분석 결과, 평생 및 직업교육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2004년 평생 및 직업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경우 모두 2조2천770억 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954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9천700만 원을 각각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예산이 전체의 69.8%인 1조5천895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을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4년제 대학의 2004년도 연구비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2일, 전국 187개(자료 미제출 14개, 자료 미포함 2개) 4년제 대학의 2004년도 연구비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2004년도 4년제 대학에 지원된 학술연구비는 총 51,085과제에 대해 2조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하였고,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4천 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10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KAIST 등)이 전체 연구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비 편중 현상이나타났다.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24,095편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연구비를 많이 지원받는 대학일수록 게재 편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1조 2,158억원 (58.9%), 지방은 8,476억원(41.1%)으로 교원 분포(수도권 42.2%, 지방 57.8%)와 반대로 나타났다.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수도권이 5천 8백만원, 지방이 2천 9백만원으로 수도권 교수가 지방교수에 비해 연구비가 평균적으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9월 15일, '교육불만족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전국단위 '200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는 100점 만점에 71.48점을 기록, '보통' 수준인 60점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60.62점, 일반계 고교생 58.59점, 실업계 고교생은 58.73점을 기 록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초등학교는 72.84점이었으나 중학교 67.22점, 일반계 고교 65.04점, 실업계 고교 65.63점으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학생의 경우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76.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 및 진학 지도(56.18점), 학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58.57점) 부문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열정과 지식 항목에 77.30점을 줘 만족도가 높았으나 진로 및 진학 지도 부문은 63.76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교사의 경우도 만족도가 초등학교 65.68점, 중학교 64.40점, 일반계 고교 63.85점, 실업계 고교 60.54점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았다.

항목별로는 학생들의 학력 항상 등 교직수행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72.6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생활지도 및 직무부담(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태도(57.69점)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67.9점, 교사 63.74점, 학생 62.67점으로 모두 '보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 교육인적자원부, 누리사업의 2005년도 지원사업단 추가 선정결과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28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의 2005년도 지원사업단 추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추가 선정 예산은 2004년에 선정된 112개 사업단에 대한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발생된 잔여사업비(선정취소사업비삭감·협력대학 탈퇴 등으로 발생된 279억원)로, 2005년 5월에 기 선정된 예비후보 사업단의 순위에 따라 11개(대형 4, 중형 4, 소형 3) 사업단을 선정한 것이다. 이로써, 누리 사업은 2004년에 선정된 105개 사업단(연차평가 결과 7개 탈락 사업단 제외)과 금년 6월에 선정된 7개 신규 사업단을 포함하여 123개 사업단에 총 2,4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 현황을 보면 중심대학 기준으로 국립 7개, 사립 4개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2개(대형 1, 중형 1)로 강세를 보였고, 기타 BT·IT·CT·기계·환경·경영 등이 골고루 선정되었다.

<표 1> 신규 선정 사업단 현황

(단위: 억원)

유형	권역	중심대	협력대	사업명	신청액
	대구/경북	경북대	금오공대	첨단기술 퓨전형 섬유산업 leading 그룹 양성	45
대형	부산	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혁신인력 양성	50
내성	광주/전남/제주	순천대	전남대, 여수대	친환경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45
전북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산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	50	
	대구/경북	포항공 대	경북대, 안동대	청정공정 및 에너지 인력양성	30
	충남	고려대	단국대, 한서대	차세대 농.축산식품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30
중형	경남/울산	창원대	경상대, 인제대, 거창전문대, 남해전문대	제조 IT 혁신전문인력 양성	23
	광주/전남/제주	제주대	제주한라대학	제주문화 컨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5
	강원	상지대	강릉대	미래형 숲 관리 인령양성	8.2
소형	대전	충남대	한밭대	도심생태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10
	충북	건국대	청주대, 청주과학대학	IT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1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27). 누리사업 2005년도 지원사업단 추가 선정결과를 발표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NEIS 구축·운영에 관한 부령 제정·시행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869호)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의 주요내용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작성·관리하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을 기존 NEIS에서 분리하여 이를 별도의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을 명시, NEIS의 접속 및 사용권한을 엄격히 관리토록 규정, NEIS를 통해 학부모가 학생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을 규정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규칙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학생정보의 분산관리및 내부 권한관리자의 관리의무 부여 등 학생정보보호의 기준이 제시되고,학부모가 학생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교육참

여 기회가 증대되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규칙에서 규정된 별도의 새로운 시스템은 2006년 3월 1일 전면 개통되고, 제증명 발급 등은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직업교육 동향

◈ 경기도교육청, 실업계 특성화고교를 2011년까지 18개교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6 개인 도내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9월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성남 양영공업고등학교를 지자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로봇 관련 특성화 고교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산업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반도체 관련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과 2008년에 3개교씩, 2009년에 2개교, 2010년과 2011년에 1개교씩 실업계특성화 고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협약학교는 도교육청과 함께해당 지자체로부터, 산업체협약학교는 도교육청 및 인근 지역 산업체로부터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영디지털고교로 교명을 바꿔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양영공고는 기존 학과들을 모두 디지털로봇과 등 로봇 관련 학과 로 개편해 운영한다. 파주공고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반도체 및 문화 콘텐츠 특성화학과로 개편한다.

도교육청은 양영공고의 경우 성남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로봇 및 유비 쿼터스 관련 기업들의 전문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파주공고는 인근 LG 필립스 파주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5 실업고 및 전문대 주요 현황

■ 학교수·학생수·교원수

2005년 실업계 고교 학교수는 713개교로 2004년에 729개교에 비해 16개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각각 7만여명, 1만6천여명이 증가한 반면, 실업계 고교 학생수는 오히려 514,550명에서 약 11,000여명이 줄은 503,104명으로 집계되었고, 교원수도 지난 해 39,906명에서 약750여명이 감소한 39,163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2004년 897,589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무려 4 만여 명이 감소한 853,089명으로 집계되었고, 교원수가 11,872명에서 12,027 명으로 2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학교수·학생수·교원수 추이

(단위: 개교 명)

										(271)	/ 1112-, 6/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학	실업고	605	635	587	762	764	759	741	734	729	713
교 수	전문대	128	120	117	145	158	158	159	158	158	158
학생수	실업고	764,187	885,962	810,651	911,453	746,986	651,198	575,363	542,077	514,550	503,104
<u>څ</u>	전문대	165,051	242,117	323,825	569,820	913,273	952,649	963,129	925,963	897,589	853,089
교 원 수	실업고	10,009	15,340	23,468	29,506	34,609	42,656	40,977	39,810	39,906	39,163
천 수	전문대	1,637	2,748	5,488	6,406	7,382	10,384	11,707	11,897	11,872	12,027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학급당 학생수/교원1인당 학생수

2005년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수 30.0명으로 지난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1980년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3>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계 고교	56.1	57.0	59.6	55.5	51.5	47.9	40.3	36.4	32.2	31.0	30.2	3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넌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실업계 고교가 13.5명, 전문대학이 70.9명으로 나타 나 지난 2000년을 전후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	11. 0/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업계 고교	27.5	31.0	32.6	30.0	23.4	21.4	18.2	16.4	14.4	13.8	13.4	13.5
전문대학	24.2	27.4	33.8	45.2	52.7	67.6	78.0	80.1	79.2	77.3	75.6	7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진학률/취업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67.6% 기록 전년 대비 5.3%p가 상승한 것을 나타났으며, 지난 1995년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5> 진학률

(단위: %)

					(= ., , , , ,
구분 년도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고등교육	일반계고 → 고등교육	실업계고 → 고등교육
1980	95.8	84.5	27.2	39.2	10.1
1985	99.2	90.7	36.4	53.8	13.3
1990	99.8	95.7	33.2	47.2	8.3
1995	99.9	98.5	51.4	72.8	19.2
2000	99.9	99.5	68.0	83.9	41.9
2001	99.9	99.5	70.5	85.2	44.9
2002	99.9	99.5	74.2	87.0	49.8
2003	99.9	99.7	79.7	90.1	57.6
2004	99.9	99.7	81.3	89.8	62.3
2005	99.9	99.7	82.1	88.3	67.6

주: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은 86.3%로 전년 대비 1.3%p가 감소하여 지난 2002 년 이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업계 고교의 취업률 감소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 인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 취업률

(단위: %)

				(= 11 /6/
구분 년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1980	15.7	58.2	50.3	73.0
1985	16.2	60.4	57.2	52.1
1990	18.7	84.0	71.8	55.0
1995	26.4	90.9	74.2	60.9
2000	15.5	88.8	79.4	56.0
2001	18.9	88.2	81.0	56.7
2002	18.1	90.0	80.7	60.7
2003	17.6	90.2	79.7	59.2
2004	14.0	87.6	77.2	56.4
2005	12.1	86.3	83.7	65.0

주: 1)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해외 동향

◈ OECD, 2005 OECD 교육지표 발간

OECD는 9월 13일 11:00시(파리현지기준) 2005년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EAG)를 발간하였다. OECD 국가 중 지표로 나타 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총괄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다!).

²⁾ 전문대학에는 각종학교(전문)과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이,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원격대학(대학) 등이 불포함.

¹⁾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p.3.

□ 산출 측면: GDP 성장률, PISA 결과, 졸업률 등 전반적인 산출지표들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투입 측면: GDP 대비 학교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투입 지표들
에 있어서는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접근 측면: 취학률, 입학률 등 교육기회 접근 측면에서는 타 OECD 국
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임
□ 환경 측면: 학급당 학생수 및 1인당 학생 학습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은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지표들임

2005년 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시사 점을 주는 주요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2003년도 기준 25세~64세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은 73%로 OECD 국가평균인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평균이 75%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73%에 그치고 있는 것은 45세 이상 성인 인구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45~54세: 55%, 55~64세: 32%) OECD 국가평균에(각각 62%와 51%)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기준 25세~64세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 이수율은 29%로서 OECD 국가평균인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이상 이수율은 OECD 국가평균이 29%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7%로 캐나다(53%), 일본(52%)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표 7> 연령별 후기중등교육단계 및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 비율(2003)

(단위: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	73	97	83	55	32
한 국	B유형 고등교육 ¹⁾	8	17	7	2	1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²⁾	22	30	26	14	9
	후기중등교육단계(고등학교)	66	75	70	62	51
국 가 평 균	B유형 고등교육 ¹⁾	8	9	8	7	5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²⁾	16	20	17	15	12

주: 1) 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 이공계열 대학 졸업생수

4년제 대학 이공계열 졸업생 수를 인구 10만명 대비로 살펴보면 한국이 남녀 합하여 2,000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2,172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년제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의 이공계열 졸업생 수를 인구 10만명 대비로 살펴보면 한국이 남녀 합하여 2,17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고 등교육 이수율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²⁾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박사 과정 등이 포함됨.

<표 8> 고등교육 이공계열의 인구 10만명당 졸업생 수: 성별(2003)

		A 22 E 1		. 6 31 E -	- 0 - 1 - 1 - 1) - "
구 분	B	유형 고등교육		A유형 고등고	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1 2	남녀합계	남자	여자	남녀합계	남자	여자
한 국	2,175	2,361	1,870	2,000	2,250	1,589
스웨덴	169	224	108	1,438	1783	1055
오스트리아	444	437	100	1,942	848	292
핀란드 ^{I)}	61	98	15	2,172	2,842	1,355
스위스	629	1,054	135	864	1,316	339
독 일	225	385	32	852	1,122	526
영 국	443	603	235	1,926	2,155	1,630
캐나다	m	m	m	m	m	m
이탈리아	n	n	n	926	1,002	815
미 국	349	490	177	1,069	1,270	825
벨기에	542	818	209	760	966	512
체 코	49	60	33	805	933	606
일 본	463	638	203	1,140	1,656	372
폴란드	a	a	a	1,489	1,767	1,131
국가평균	372	490	224	1,157	1,398	858

- 주: 1) 2002년도 자료임.
 - 2) m은 자료가 해당 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3)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 4)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5) 이공계열: 생명과학, 물리과학, 수학통계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분야, 제조 과정 분야, 건축학 분야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 교육의 수익률

교육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5~64세의 연령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이 약 1.3배 이상의 임금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5~64세의 연령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여성보다 약 2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고등교육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헝가리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9> 학력에 따른 상대적 임금차이

구분	조사 년도	성별	2년제, 산업, 기술대학 졸업		4년제 및 프로그	전문연구 .램졸업	고등교육 졸업전체	
	<u>.</u>		25-64세	30-44세	25-64세	30-44세	25-64세	30-44세
한국	2003	남성	103	109	138	132	127	125
안시	2003	여성	138	146	201	227	176	195
헝가리	2003	남성	202	174	274	287	274	286
%/F더		여성	164	166	208	206	208	206
영국	2003	남성	124	118	162	164	151	151
33		여성	141	137	200	202	180	179

주: 위의 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받는 임금을 100으로 상정했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임금을 상대적 크기를 말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중

2002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1% 이며 이 중 정부부담률은 4.2%로서 OECD 국가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 국가평균인 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전체고등교육기관 중 사립교육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며 이는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GDP 대비 교육단계별 학교 교육비 구성(2002)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	중등교육단기	41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한 국	4.2	2.9	7.1	3.3	0.9	4.1	0.3	1.9	2.2
국가평균	5.1	0.7	5.8	3.6	0.3	3.8	1.1	0.3	1.4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PPP: 2002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778.77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553, 중등교육 \$5,882, 고등교육 \$6,047로 OECD 국가평균(각각 \$5,313, \$7,002, \$10,655)의 57%~84%에 머물고 있다.

<표 11>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2002)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초등교육		중등	교육	고등교육		
구 분	학생1인당교 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교육비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교육비	
한 국	3,553	19	5,882	32	6,047	33	
국가 평균	5,313	20	7,002	26	10,655	43	

주: 우리나라의 2002년도 PPP 환율은 1달러 당 778.77 원임.

■ 연령대별 취학률

200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대별 취학률을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면 5-14세, 15-19세, 20-29세의 취학률은 각각 93.2%, 81.7%, 27.3%로 OECD 국가평균(각각 98.3%, 79.1%, 23.6%)과 비슷하나, 4세 이하 아동의취학률(19.9%)과 30-39세 취학률(1.9%)과 40세 이상의 취학률(0.4%)은 OECD 국가평균(각각 67.8%, 5.4%, 1.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2> 전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연령별 취학률(2003)

(단위: %)

		학생 연령							
구 분	3-4세 인구대비 4세 이하 학생 취학률	5-14세 인구대비 5-14세 학생 취학률	15-19세 인구대비 15- 19세 학생 취학률	20-29세 인구대비 20- 29세 학생 취학률	30-39세 인구대비 30- 39세 학생 취학률	40세 이상 인구 대비 40세 이상 학생 취학률			
한 국	19.9	93.2	81.7	27.3	1.9	0.4			
국가평균	69.8	98.3	79.1	23.6	5.4	1.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한국의 유아교육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유치원 취학 아동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 등 기타 유아교육기관의 취학아동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에 재학 중인 5세 아동이 OECD 기준에 따라 초등교육 단계의 (5-14세) 취학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30대 이상의 정규교육 취학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고졸자가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간제등록제 등 성인에 대한교육 또는 재교육의 확대 등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성별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별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B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입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입학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OECD 국가평균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별 고등교육기관 입학률(2003)

(단위: %)

구 분	E	유형 고등교	육		A유형 고등교	육
1 T	남+여	남	여	남+여	남	여
한 국 ¹⁾	51	49	54	50	53	47
일 본 ^{I)}	31	22	40	42	48	35
독 일 ²⁾	16	11	21	36	35	37
국가평균	16	14	17	53	47	57

주: 1) 입학률 계산시 총입학률(gross entry rate) 산식이 적용됨. 이외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순입학률(net entry rate) 산식을 적용하였음. 순입학률이란, 특정 연령계층에서 처음으로 해당 고등교육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을 계산한 후 각연령층의 입학률을 더한 값을 의미하며 총입학률이란, 연령과 관계없이 전형적 입학연령인구 대비 전체 입학생수의 비율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점수와 OECD 국가평균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남여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함.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비교가 가능하며 B 유형의 경우에는 독일과도 비교가 가능함.

²⁾ B유형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은 총입학률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09.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 보도자료.

직업훈련

--- 〈목 차〉

- 1. 정책동향
- 2. 직업능력개발사업 동향

1. 정책동향

- ◆ 노동부, 전문대·기능대와 지원협약 체결(2005. 10. 5.)
- 노동부는 성장동력 산업분야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장안전문대 등 20 개 전문대·기능대와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식은 지원 신청한 64개 대학 중 민간전문가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난 8월 2일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20개 대학과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거쳐 대학별 사업내용을 확정, 공식화한 것
-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앞으로 3년 간[패년 10억씩이 지원될 예정
 - 기존의 학과를 성장동력 분야 중간기술인력양성에 적합한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장비 구입비, 과정개발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으로 매년 10억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정부에서 지정한 성장동력특성화대학이라는 명칭을 공식사용하게 되어 향후 기업과의 산학협력, 학생 모집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 정부는 이번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화에 대비한 핵심기술인력 확보 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기존의 단일 학과과정에서 벗어나 학과간 융합적 성격이 강한 성장동력 산업의 인력수요에 맞게 여러 학과에 걸친 종합 교과과정이 개발·운영 되고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져 생산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기 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1> 성장동력 특성화대학 지원대학

분 야	계	대 학 명(지역)					
	20개	전문대 12개 기능대 8개					
 디지털TV/방송	2	동아방송대학(경기), 인천기능대(인천)					
디스플레이	3	구미기능대(경북), 성남기능대(경기), 광주기능대(광주)∗					
지능형로봇	2	대전기능대(대전), 인하공업전문대(경기)					
미래형자동차	2	오산대학(경기), 양산대학(경남)					
차세대이동통신	3	연암공업대학(경남), 구미1대학(경북), 서울정수기능대(서울)					
지능형홈네트워크 3		청주기능대(충북), 부산기능대(부산), 신흥대학(경기)					
디지털컨텐츠	4	장안대학(경기), 안산1대학(경기), 경북전문대(경북), 제주한라대학(제주)					
바이오신약/장기	1	서울보건대학(경기)					

- ◈ 노동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협약 체결(2005. 10. 5.)
- 디스플레이산업협의체, 기계산업협의체 등 9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와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협약 체결
 - 협약을 체결한 9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는 교육

훈련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내년 8월까지 산업별 인력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개발

- 정부는 내년 9월부터 2차년도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산업 별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산업계가 직접 수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도 구 체화할 계획임.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지원대상
 - 디스플레이, 기계, 철강, 섬유,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e-biz협의체

2. 직업능력개발사업 동향

- ◈ 2005년 9월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인원,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
- 2005년 9월 고용보험사업 내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은 지원 인원 25만6천
 여 명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3.8%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3.4% 감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19만7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0%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5.0% 감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2005년 들어 7월을 제외하고는 20만 명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던 것이 이달 들어 20만 명이하로 떨어짐.
-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4만1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 증가해 여섯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이어나감.
- 기타 훈련 인원은 1만8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9.3% 증가해 2005년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지속
- 기타 훈련 인원 중 수강지원금은 6천4백여 명에게 지원돼 전년 동월 대비로 9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다섯 달 연속 5천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적이 매우 좋음. 또한 유금휴가훈련도 전년 동월 대비 62.5% 증가했으며,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과 여성가장 취업훈련은 각각 115.2%, 109.8%로 100% 이상 증가해 기타훈련 증가율을 이어감.

<표 2>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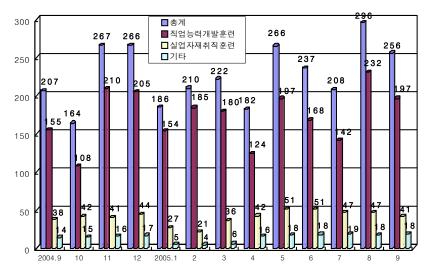
(단위: 명, %)

									-, -,	
년월	2004			2005						
구분	7	8	9	7	증가율	8	증가율	9	증가율	
총계	165,070 (100.0)	222,542 (100.0)	208,422 (100.0)	208,422 (100.0)	26.3	296,229 (100.0)	33.1	256,422 (100.0)	23.8	
직업능력 개발훈련	106,356 (64.4)	167,118 (75.1)	141,962 (68.1)	141,962 (68.1)	33.5	231,648 (78.2)	28.6	196,810 (76.8)	27.0	
실업자 재취직훈련	42,707 (25.9)	40,714 (18.3)	47,465 (22.8)	47,465 (22.8)	11.1	47,011 (15.9)	15.5	41,471 (16.2)	8.9	
기타	16,007 (9.7)	14,710 (6.6)	18,995 (9.1)	18,995 (9.1)	18.7	17,570 (5.9)	19.4	18.141 (7.1)	29.3	

- 주: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지원금, 교육훈련지원금, 사업주양성훈련(자체, 위탁), 사업주장상훈련(자체, 위탁), 사업주전직훈련(자체, 위탁), 해외직능개발사업 등의 9개 사업으로 구성
 - 2) 기타는 유급휴가훈련, 정부위탁훈련, 수강지원금,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등으로 구성.
 - 3)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정부위탁훈련은 각각 훈련비용 및 수당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중복 집계 될 수 있음.
 - 4) 기타에 포함되어 있던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실적은 집계소요시간으로 인해 2004년 1월부터 월간분석에는 포함되지 않고, 분기별 분석에만 수록됨.
 - 5)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임.
 - 6) ()안은 구성비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단위: 천명)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 2005년 9월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 비중은 2.5%로 전년 동월에 비해 0.4%p 증가
- 2005년 9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27.0% 증가해 세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은 2.5%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 동월보다 0.4%p 증가했으나, 전월에 비해서 는 0.4%p 감소
- 2004년과 2005년 모두 7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이 2% 이하로 내려갔다가 9월 이후 2%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표 3>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명, %)

년월		2004		2005			
구분	7	8	9	7	8	9	
고용보험피보험자(A)	7,489,061	7,492,299	7,508,316	7,907,681	7,935,140	7,964,850	
직업능력개발훈련(B)	106,356	167,118	155,028	141,962	231,648	196,810	
비중(B/A)	1.4	2.2	2.1	1.8	2.9	2.5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5인 미만 영세규모 사업체 훈련 참여율 1.1%로 상승

- 사업체 규모별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고용보험 피 보험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한 참여율을 살펴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참여율이 9.2%인 11만1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체 중 30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9월에 2만9천여 명이 훈련에 참가해 참여율이 3.4%로 나타났고, 전년 동월에 비해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
- 5~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9월에 전년 동월에 비해 121.1% 증가한 4
 만2천여 명이 훈련에 참가해 0.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5인 미만 영세규모 사업체의 훈련 참여율은 4월 이후 0.2%로 훈련 참여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 달 들어서 1.1%로 상승
- 2005년 9월의 규모별 참여율의 추세를 보면,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전월에 비해 3.2%p 감소했고, 30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1.1%p 감소, 5~2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0.1%p 감소했으며,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0.9%p증가해, 전체 참여율은 전월에 비해 0.4%p 감소 한 것으로 나타 남
- ㅇ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각 규모별 비중에서는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전년 동월 16.7%에서 15.7%로 1.0%p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훈련인원 비중은 3.0%에서 7.0%로 4.0%p 높아진 것으로 타나났음. 5~299인 규모의 사업체의 피보험자 비중은 56.6%에서 58.0%로 1.4%p의 증가가 있었으나, 훈련인원 비중은 12.3%에서 21.4%로 많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1000인 이상 규모에서는 피보험자의 비중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훈련인원의 비중만 14.9%p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표 4>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훈련참여 현황

(단위: 명, %)

							(= 11 0, 707
	구	분	계	5인 미만	5~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피보험자수	7,489,061	1,253,152	4,241,720	820,705	1,173,484
	7월	훈련참가자	106,356	4,795	21,980	18,092	61,489
		참 여 율	1.4	0.4	0.5	2.2	5.2
		피보험자수	7,492,299	1,256,633	4,238,654	817,599	1,179,413
2004년	8월	훈련참가자	167,118	5,331	26,215	22,603	112,969
		참 여 율	2.2	0.4	0.6	2.8	9.6
	9월	피보험자수	7,508,316	1,255,139	4,250,936	816,395	1,185,846
		훈련참가자	155,028	4,636	19,064	20,604	110,724
		참 여 율	2.1	0.4	0.4	2.5	9.3
		피보험자수	7,907,681	1,144,587	4,597,414	868,449	1,297,231
	7월	훈련참가자	141,962	2,449	29,584	21,085	88,844
		참 여 율	1.8	0.2	0.6	2.4	6.8
		피보험자수	7,935,140	1,163,106	4,598,968	868,255	1,304,811
2005년	8월	훈련참가자	231,648	2,769	36,635	30,114	162,130
		참 여 율	2.9	0.2	0.8	3.5	12.4
		피보험자수	7,964,850	1,251,896	4,622,550	885,883	1,204,521
	9월	훈련참가자	196,810	13,803	42,157	29,731	111,128
		참 여 율	2.5	1.1	0.9	3.4	9.2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9월 중 사업주 위탁훈련 전년 동월 대비 55.5% 증가

- 2005년 9월 사업주 훈련에는 19만7천여 명이 참가해 전년 동월에 비해 27.0%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15.0% 감소하였음.
- 9월 중 자체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9만1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4.9% 증가 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28.9% 감소하였음.
- 9월 중 위탁훈련 인원은 10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5% 증가했고, 전월 대비 2.5% 증가하였음.

<표 5> 사업주 자체훈련, 위탁훈련 실적

(단위: 명, %)

년월		2004				200	05		
구분	7	8	9	7	증가율	8	증가율	9	증가율
사업주 자체훈련	46,219 (43.5)	103,008 (61.6)	87,576 (56.5)	67,336 (47.4)	45.7	129,329 (55.8)	25.6	91,899 (46.7)	4.9
사업주 위탁훈련	60,137 (56.5)	64,110 (38.4)	67,450 (43.5)	74,626 (52.6)	24.1	102,310 (44.2)	59.6	104,911 (53.3)	55.5
전체	106,356 (100.0)	167,118 (100.0)	155,026 (100.0)	141,962 (100.0)	33.5	231,639 (100.0)	38.6	196,810 (100.0)	27.0

- 주: 1) 사업주 훈련은 양성, 향상, 전직훈련으로 구분됨.
 - 2) ()안은 구성비임.
 - 3)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9월 중 사업주 양성훈련 참가 인원 전년 동월 대비 59.6% 증가

- 사업주 훈련 중 양성훈련 인원은 2천9백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6%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30.7% 감소
- 사업주 향상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19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6%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도 14.8% 감소하였음.
- 사업주 전직훈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2005년 9월에 두 자리수 회복

<표 6> 사업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실적

(단위: 명, %)

년월		2004				2	2005		
구분	7	8	9	7	증가율	8	증가율	9	증가율
사업주 양성훈련	2,035 (1.9)	2,310 (1.4)	1,837 (1.2)	3,038 (2.1)	49.3	4,228 (1.8)	83.0	2,931 (1.5)	59.6
사업주 향상훈련	104,289 (98.1)	164,756 (98.6)	153,087 (98.7)	138,887 (97.8)	33.2	227,40 3 (98.2)	38.0	193,822 (98.5)	26.6
사업주 전직훈련	32 (0.0)	52 (0.0)	102 (0.1)	37 (0.1)	15.6	8 (0.0)	-84.6	57 (0.0)	-44.1
전체	106,356	167,118 (100.0)	155,026 (100.0)	141,962 (100.0)	33.5	231,63 9 (100.0)	38.6	196,810 (100.0)	27.0

주: 1) ()안은 구성비임.

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 9월 중 신규 취업 인원의 양성훈련 참가율 4.7%로 전년 동월 대비 3.8%p 감소
- 9월 중 신규 취업 인원 중 양성훈련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2천9백여 명으로 신규취업자 6만3천여 명 중 4.7%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남.
- 9월 중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189.8%가 증가했으나, 양성훈련 참가인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훈련 참가율은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양성훈련을 통한 신규 취업자의 인적자원개발의 비중은 신규 취업 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보다 9개월 연속 낮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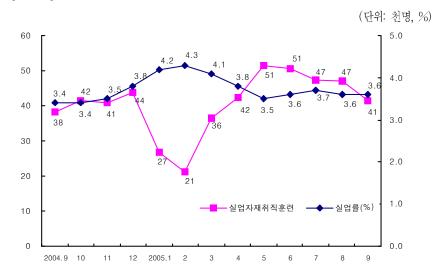
<표 7> 신규 취업 인원과 사업주 양성훈련 실적

(단위: 명, %)

년월		2004			2005	
구분	7	8	9	7	8	9
신규 취업 인원(A)	21,816	20,826	21,710	69,868	63,060	62,920
사업주 양성훈련 인원(B)	2,035	2,310	1,837	3,038	4,228	2,931
훈련 참가율(B/A)	9.3	11.1	8.5	4.3	6.7	4.7

- 주: 1) 신규 취업인원은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임.
- 2) 본 자료는 사업주 양성훈련의 인원이 모두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는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훈련의 목적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사업주 양성훈련 참여자는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분석은 추후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 ◈ 9월 중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 인원 4만1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 증가
- 2005년 9월 실업률은 3.6%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자재취직훈련 인원은 4만1 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9%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11.8%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인원은 올해 들어 5, 6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실업률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통계월보』, 각 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노동시장

- 〈목 차〉

- 1. 정책 동향
- 2. 고용 동향

1. 정책 동향

-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 정부는 25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개정안의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의결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노동부가 조사에 따르면 여성고용비율은 공기업 20.9%, 1000인 이상 기업 33.3% 등이며, 여성 관리직 비율의 경우 공기업은 2.6%로 낮게 나타나 여 성고용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업은 여성고용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
- 동 개정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

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에서는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원스톱 서비스 강화 추진(10.19)

-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한곳만 방문하여도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제공·연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단계적 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힘.
 - 1단계는 노동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간과의 파트너쉽을 활용한 프로그 램 센터를 고객에게 제공
 - 2단계는 각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취업알선추진협의회를 개편하는 등 지역 고용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단계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취업 및 고용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거나 관련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마련
 - 금년 중 고용안정센터는 지역협력팀, 기업지원팀, 직업·진로지원팀 등을 개편
 -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되면, 수요자의 만족도 및 시간비용 상의 효율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유관기관 간 파트너쉽을 활용한 업무 혁신(지역고용네트워크 활성화)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의 효율성도 높아 질 전망.
- ◈ 통계청, 비정규직 규모 54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 증가
- 통계청은 지난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548만 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9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

- 이러한 수치는 2001년 8월 조사개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점점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규모 분석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한 비정규직 정의 및 범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 모(약 855만 명)와는 차이가 발생
-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저연령층 및 고령층, 고졸이하, 단순노무직 에 많으며, 20~30대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5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
 - 2. 고용 동향1)
- ◈ 경제활동참가율 62.2%,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
- 2005년 9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2%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한 반면, 여성은 50.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
- 취업자는 2,30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
- 실업자는 8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8천 명 증가, 실업률은 3.6%로
 0.2%p 상승
 -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1,45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 o 고용률은 59.9%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

^{1) 2005}년 6월 통계부터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구직기간 4주』로 변경되어, 본 동향에서는 구직기간 4주 실업통계 기준을 따라 작성됨.

<표 1> 노동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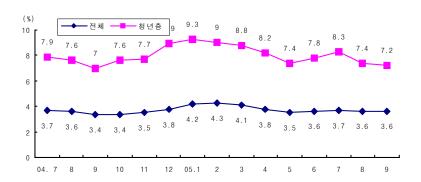
(단위: 천 명, %)

										, ,	., _	0, ,-,
년월		2004				2005						
구분	7		8		S)	7		8		9	
15세이상인구	37,744	(1.0)	37,771	(1.0)	37,798	(1.0)	38,403	(1.7)	38,428	(1.7)	38,448	(1.7)
경제활동인구	23,616	(1.4)	23,229	(1.3)	23,601	(2.3)	24,072	(1.9)	23,689	(2.0)	23,918	(1.3)
취업자	22,750	(1.3)	22,382	(1.2)	22,809	(2.3)	23,184	(1.9)	22,847	(2.1)	23,048	(1.0)
참가율	62.6		61.5		62.4		62.7		61.6		62.2	
실업자	865		848		792		888		843		870	
실업률	3.7	[3.8]	3.6	[3.8]	3.4	[3.7]	3.7	[3.8]	3.6	[3.7]	3.6	[4.0]
고용률	60.3		59.3		60.3		60.4		59.5		59.9	
비경제활동인구	14,128	(0.3)	14,542	(0.6)	14,197	(-1.1)	14,331	(1.4)	14,739	(1.4)	14,530	(2.3)

- 주: 1) 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3) ()안의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4) []안의 수치는 계절조정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그림 1]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 청년층 실업률 7.2%

○ 9월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의 경우, 구직기간 4주 공식 실업률(K4)은

3.6%,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K5)은 4.1%, 불완전취업자에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최대 실업률(K7)은 4.6%를 기록

○ 한편, 청년층 실업률(K4)은 7.2%이고,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K5)은 7.7%. 불완전취업자와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업률(K7)은 7.9% 기록

<표 2>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단위: %)

년월		전체			청년층		
	2005			2005			
구분	7	8	9	7	8	9	
k1	0.4	0.4	0.4	0.8	1.0	0.9	
k2	1.3	1.3	1.3	1.5	1.5	1.3	
k3	3.5	3.4	3.3	7.9	7.1	6.7	
k4	3.7	3.6	3.6	8.3	7.4	7.2	
k5	4.2	4.2	4.1	9.0	8.1	7.7	
k6	4.2	4.0	4.1	8.6	7.7	7.3	
k7	4.8	4.6	4.6	9.2	8.3	7.9	

주: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Range of alternative measure of labor underutilization)는 다음 과 같이 분류됨.

·K-1:6개월 이상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K-2: 비자발적 전직실업자1)÷경제활동인구×100

·K-3:1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K-4: 4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K-5: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2)]÷[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K-6: [4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3)]÷경제활동인구×100

·K-7: [4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 1)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직장의 휴폐업',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기타' 등이 이에 속한.
- 2)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로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말함.
- 3) 불완전취업자란 1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05년 3/4분기 청년층 장기실업자, 전체의 44.5% 차지

- 2005년 3/4분기 전체 장기실업자는 10만3천 명 기록
- 고졸 장기실업자는 전체 장기실업자의 51.9%로 여전히 과반 수 이상 차지, 대졸 이상은 38.7% 비중
- 한편, 청년층(15세~29세) 장기실업자는 전체의 44.5%, 30~39세는 24.4%, 40~49세는 22.5% 비중

<표 3> 학력・연령계층별 장기실업자 비중(2005년 3/4분기)

(단위: 천 명, %)

				(2.1 2 0, 1-7
학력별 연령별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합계
15~29세	0.6(0.6)	21.3(20.6)	24.2(23.4)	46.2(44.5)
30~39세	0.9(0.9)	14.7(14.2)	9.5(9.2)	25.3(24.4)
40~49세	4.7(4.5)	12.7(12.2)	5.9(5.7)	23.4(22.5)
50~59세	1.5(1.5)	3.6(3.5)	0.4(0.4)	5.6(5.4)
60세이상	1.6(1.6)	1.3(1.3)	0.0(0.0)	3.0(2.9)
합계	9.5(9.2)	53.9(51.9)	40.2(38.7)	103.6(100.0)

주: () 안의 수치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중·고령층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

- 남성 취업자는 1,33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여성 취업자는 971만 명으로 1.5%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그 증가폭이 높은 편
- 중·장년층 취업자는 1,46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 중·고령
 층 취업자는 5.5%로 지난달과 증가폭이 동일
 - 중·고령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43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표 4>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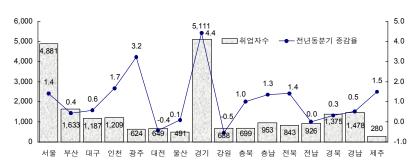
	년월		2004			2005	
구분		7	8	9	7	8	9
성별	남성	13,259(0.7)	13,106(0.8)	13,246(1.4)	13,495(1.8)	13,331(1.7)	13,342(0.7)
78일	여성	9,492(2.1)	9,276(1.7)	9,563(3.5)	9,690(2.1)	9,516(2.6)	9,706(1.5)
	15~29세 (청년층)	4,718(-0.9)	4,487(-2.9)	4,570(1.2)	4,588(-2.8)	4,415(-1.6)	4,351(-4.8)
연령별	30~54세 (중장년층)	14,321(1.6)	14,179(1.7)	14,426(2.1)	14,621(2.1)	14,513(2.4)	14,673(1.7)
	55세 이상 (중고령층)	3,712(3.4)	3,716(4.4)	3,813(4.1)	3,976(7.1)	3,920(5.5)	4,024 (5.5)
전체		22,750(1.3)	22,382(1.2)	22,809(2.3)	23,184(1.9)	22,847(2.1)	23,048(1.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 ◈ 2005년 3/4분기2) 경기 지역 취업자,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경기 지역 취업자는 51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광주 지역 취업자는 3.2% 증가
 - 그 다음으로 인천, 제주, 서울 지역은 각각 1.7%, 1.5%, 1.4% 기록
 - 반면, 강원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 대전은 0.4% 감소

²⁾ 지역별 취업자는 월별 자료 및 분기 자료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10월 동향은 분기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기로 함.

[그림 2] 행정구역별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 전문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

- 전문가는 19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 준전문가는 0.2%로 소 폭 감소
 - 조작조립직, 농림어업숙련직은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9% 증가
 - 서비스직은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 ㅇ 반면, 판매직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단순노무직은 1.0% 감소

[그림 3] 직업별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부록 2>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 예시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추진방향

--- 〈목 차〉 --

- 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2.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 3.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혁신
- 4. 맺음말
- 1. 공무원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가. 개요

- ㅇ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가 정부의 효율성
-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행정 혁신은 인사제도를 비롯한 행정조 직 일하는 방식 등 제반 영역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운용할 주 체로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훈련의 획일성 및 전문성 부족 교육훈련기관 및 기능의 비체계성 교육훈련과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국가혁신을 이끌 핵심인재의 양성체제 미흡 등으로 공무원의 경쟁 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의 근본적 혁신이 미진한 상황
- 나.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크게 국가공무원 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 교육기 관으로 구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크게 국가공무원 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 교육기 관으로 구분됨.
- 중앙공무원교육원(2004년도 46개 과정 5,300여명)
 - 기본교육(간부, 승진자, 신임자), 전문교육(중하위직 중심)
 - 외국공무원과정, 특별교육, 민간사회지도층 워크숍 등
- 국가전문행정연수원(행정자치부 소속)
 - 행정자치, 교육, 농림, 건교, 특허, 통계의 6개 부청 공무원 교육
 - 자치행정연수부: 장기교육(지방5급이상), 기본교육(5급승진자 등), 공통 전문·선태과정(5~9급)
- 각 부처별 교육훈련기관(독립 10개기관, 병설 10개기관)
 - 소속공무원 기초 전문교육

<표 1>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실적(2003년)

 구분	합계	교육훈련	위탁교육			
下七 皆州		기관교육	소계	국내	국외	
연인원(명)	280,864	271,993	8,871	6,679	2,192	

※ 직장교육: 4,647,886명(자체국내위탁교육포함)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출처: 홍길표, 공선표(2004).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

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이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
- 교육훈련 예산 편성이 미흡한 현실임.
 - 1인당 교육훈련 예산
 - 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과 교육훈련 예산의 연평균증가율 비교
 - 정원 감소

- 부처의 교육훈련 운영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인력개발 계획 없이, 승진서열, 경력 등을 고려한 차출식·비자발적교육훈련을 실 시
 - 정부차원에서의 훈련수요와 공무원 개인의 훈련수요가 교육과정의 개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교육내용의 편성에도 교육훈련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표 2> 연도별 재정규모, 교육훈련예산 및 정원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재정규모	63,692,100	73,225,982	80,509,887	88,736,300	99,180,065	109,629,790	118,356,045
예산	교육훈련 예산	76,330	60,719	60,681	57,601	77,303	89,246	88,693
	정원	2,230	1,747	1,535	1,688	1,615	1,615	1,609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출처: 홍길표, 공선표(2004).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

2. 혁신과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가. 추진배경

- 정부혁신이 도입기를 지나 실행·확산기로 전환됨에 따라 혁신추진의 핵 심동력으로서 교육훈련 및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
- 이론·지식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정책현안 문제해결 및 공무원 역량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

나. 개요

- 참여정부 핵심 국정철학으로서 정부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계층별, 부처 별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훈련에 문제해결형 실천학습(AL), 역량중심 교육체계 등 선 진기법 도입을 통한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현
 -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원·컨설팅

다. 목표

- ㅇ 공무원 혁신교육의 강화로 교육훈련을 통한 정부혁신 촉진 및 가속화
-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정책품질 제고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라. 성과지표

- ㅇ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위탁 혁신교육 실적
- 전년대비 과정 수 및 교육인원 증가율. 교육과정의 타당도 등
- 문제해결형 실천학습(Action Learning)방법 확산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 련기관 컨설팅 등 지원사업 활성화 정도
 - 컨설팅 사업 실시 기관수 등

마. 세부사업내용

- ㅇ 혁신교육의 확산 및 질적 성장 추진
 - 계층별, 부처별 맞춤형 혁신교육 운영
 - 부처별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실시
- 문제해결형 실천학습(Action Learning)방법 도입 및 확산

- 중공교 고위정책과정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전파
- A.L. 도입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원·컨설팅 사업 실시
- ㅇ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및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설계 · 운영
 -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및 교육기회 확 대 등
- o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중심교육(CBT, Competency-Based Learning) 실시
 - 고위직 9개 공통역량에 대한 진단과 부족역량 보완교육 실시
 - 고위직 적용결과 토대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o 국내·외 사례
 - 문제해결형 실천학습(Action Learning)교육기법 도입
 - 1990년대 이후 조직의 핵심인력육성 및 성과지향적인 인재개발을 위해 세계일류기업을 중심으로 도입 중인 새로운 교육기법
 - · GE, IBM, 존슨&존슨, 듀퐁, 삼성, 현대, CJ, SK, 효성 등에서 경영후 계자. 관리자 및 임원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적용 중
 - 미국, 영국 등 고위공무원단 도입국가의 후보자 양성과정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의 Fed CDP(Candidate Development Program)
 - · 영국: 내각사무처 CMPS의 PFTM(Preparing for Top Management)

<표 3> 중앙공무원 교육원 분야별 현황 및 혁신방향

국정기조 및 정부혁신 교 육	○ 고위직 워크숍 개최 지원 - 장·차관급 워크숍 5회(03~) ○ 국정과제 관련 전문과정 운영 - 국가균형발전전략과정 등 6개 과정 ○ 혁신주도계층 양성과정 - 혁신관리자과정 등 3개 과정 ○ 전 교육과정 교과목의 20%를 국정기조 관련 과목으로 편성	 ▼ 국정이념 전파는 물론 국정가치 창출 및 공유 ▶ 변화・혁신의 메카로서 지속적・체계적 교육 실시 ▶ 공직윤리 및 부처간 장벽 극복을 위한 교육 강화
계 급 별 기본교육 (* 필수)	○ 국장급(2~3급) 장기 교육 : 44주 ○ 과장급(4급) 교육 : 1주 ○ 고시합격자(5급) 교육 : * 32주 ○ 5급 승진자 교육 : * 4주 ○ 6·7급 신규채용자 교육 : * 4주 ○ 7급 승진자 교육 : * 2주 ○ 8·9급 신규채용자 교육 : * 3주	 ▶ 5급 이상 관리직 혁신 교육 대폭 강화 ▶ 고위공무원단 도입과 연계한 교육과정 신설 ▶ 역량모델을 활용한 리더십·핵심역량교육 중점
분 야 별 전문교육	○ 재정경제과정, 행정관리실무과정, 등 9개과정	 ▶ 타 교육기관 우위 과정은 아웃소성・경쟁체계 도입 ▶ 공통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모듈 개발
국제교육 국제협력	의국공무원교육: 8개과정의국어교육: 3개 (영어·중국어·일어)이사이권 교육훈련기관과 협력	 ▶ 분야별 언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강화 ▶ 선진 교육훈련기관과의 쌍방향 교류확대
기 획 및 각급기관 지 원	○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기관간 협의체 운영 ○ 교재·교육기법 개발·보급	 ▶ 연구·개발기능 보완으로 HRD 기획 전문성 강화 ▶ 과학적 수요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모듈 개 발・보급 ▶ 민간부문과 네트워크 강화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 34개 코스웨어, 37개 기관 공동활용 ○ Blended-Learning 운영 - 총 20개 과정 32회 187시간 사이버교육 병행 라교육후려형신방안 세미나 자료(2004 6.4) 	 National E-learning 센터로 확대 발전 지식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수요자중심의 코스웨어 개발확대 「중앙공무워교육의 현심방안」 중앙공무워

자료: 공무원교육훈련혁신방안 세미나 자료(2004, 6.4),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방안」, 중앙공무원 교육원.

바. 기대효과

ㅇ 교육훈련을 통한 정부혁신의 확산 및 가속화

- ㅇ 역량중심 교육을 통해 공무원 성과지향 교육훈련의 새로운 모델 구축
- 정부인적자본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사. 추진일정

- 계층별, 부처별 맞춤형 혁신교육 강화
- 중공교 계층별 혁신리더과정(선도자/촉진자/실행자) 운영: 2005년~
- 중공교 부처별 맞춤형 혁신 교육과정 운영: 2005년~
- 각 부처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교육 실시 및 교육성과 평가: 2005 년~
- ㅇ 문제해결형 실천학습 방법 도입 및 확산
- 중공교 고위정책과정,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 등 일부과정에 시 범도입·운영: 2005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A.L 도입 컨설팅 계획 수립: 2005년 상반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컨설팅 실시: 2005년 하반기
- ㅇ 관리직 공무원 교육훈련체제 개편 및 강화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 운영: 2005년
 - •국공법 국회통과 시점을 감안, 5개월 과정으로 운영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 본격 시행: 2006년~
- 고위공무원단 재직자 과정 운영: 2006년~
- 중공교 역량진단센터 설립 및 역량진단시스템 개발: 2005년
- 고위직 9개 역량별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작: 2005년 하반기
- 공무원 교육훈련에 역량기반교육(CBT)방식 도입·확산: 2006년~

아. 타 정책 분야와의 연계

○ 정부혁신 추진과 연계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과 연계
-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 도입과 연계
- 3.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혁신

가. 배 경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은 증대되었으나, IMF 이후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비는 일반예산의 증가율에 비해 매년 낮게 나타나는 등 투자소홀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 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혁신 필요성 증대
-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로 선정됨

나. 개 요

○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투자의 확대와 최신 교육훈련 기법의 도입,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훈련과정의 합리적 개 편, 교육훈련 지식·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혁 신

다. 목 표

- 지방혁신과 지역발전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리더십, 확고한 공직관 등을 갖춘「세계 일 류의 지방공무원 육성」

라. 성과지표

-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방안" 마련: 2005년 상반기까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2005년 하반기까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개정: 2006년 상반기까지
- 기타 혁신방안의 계획수립 및 시행: 2006년 중

마. 세부 사업내용

- 교육수요조사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편성하고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하여 환류조치를 취하는 합리적인 교육운영시스템 의 구축
- 기초이론은 교육생이 사전에 스스로 학습하고 상호 토론을 통하여 실무 성과와 직결된 과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현업성과 지향의 참여식 교 육』강화
- 공무원교육훈련의 연구·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능한 외 부강사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
- 교육훈련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단체의 계획적 인 인력자원개발 투자를 확보(자율성·책임성)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수요자가 필 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개편
- 교육훈련에 관련된 민·관기관의 상호 연계와 협조를 통한 교육훈련 지 식·정보네트워크의 구축
- 자치인력개발원을 교육훈련 혁신의 모델로 선정, 지방교육훈련기관의 혁 신을 선도

바. 기대효과

- ㅇ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 ㅇ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 추진 일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방안」마련: 2005. 6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전부 개정
 - 개정안 입안 : 2005. 6~7, 국회 제출: 2005. 8~9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 2005. 6
- 기타 계획수립 등을 통한 개선안 반영: 2006. 1

아. 타 정책분야와의 연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교육훈련 혁신방 안"과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교육기관의 공무원 교육훈련계획과 연계

4. 맺음말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공유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책의 일관성 및 응집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는 문화적 ·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담당하고 있는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 와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가치공유 및 공직자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함.
- ㅇ 단순한 가치의 전달교육이 아닌 자발적인 가치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야 하며, 스스로 필요가치를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 동적인 인재로 대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5. 7).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위한 워크숍」자료.
- 중앙공무원교육원(2004. 6). 공무원교육훈련혁신방안 세미나 자료. 「중앙공무 원교육원 혁신방안」.

중앙인사위원회(2005. 3). 「2005 대통령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홍길표, 공선표(2004. 12).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 한국행정연구원.

홍길표 외(2004). 『공무원 교육훈련의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방향 모색』.

<부록 3>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자료분석 예시

이공계 인력 육성 · 지원 기본계획

- 〈목 차〉 -

- 1.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II.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내용
- Ⅲ.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I.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 민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 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
-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발전을 이루어내는 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산업 수 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인력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음.

<표 1> 2001년~2010년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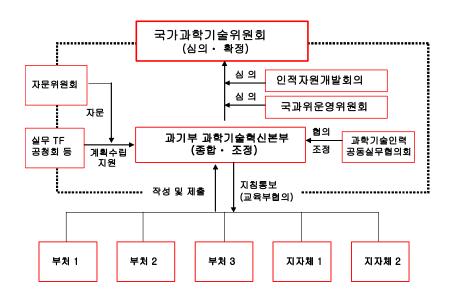
 전 공	공 급	대체수요	수요증가	전체수요	공급대비
신 o 	(A)	(B)	(C)	(D=B+C)	수요비중(D/A)
과학기술분야	848,415	331,506	380,700	712,205	83.9
이 학	102,629	50,256	36,254	86,510	84.3
공 학	565,052	200,017	274,539	474,556	84.0
의 약 학	155,336	70,104	63,673	133,776	86.1
농림수산학	25,398	11,129	6,234	17,363	68.4

- * 주: 누적치임.
- * 자료: 과학기술부,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안)(2006~2010년), 2005. 7.
 -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2004년 10월)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되어 국가 전체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체계가 개편됨에따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확립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특별법」(2004.3.22 제정, 이하 '이공계지원특별법'이라함) 및 동법 시행령(2004.12.3 공포)의 내용을 토대로 5년 주기의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범부처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올 3월 이공계 인력 양성 시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시달
 - 한편 이공계 대학 교육과 인력 양성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을 수립 하여 대통령 보고(2005년 3월)를 마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실천 가 능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후속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 이공계 인력에 관한 정책 논의 과정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12 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 립·제출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기본계획의 영역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을 종합 · 조정하여 시안을 작성

- 이후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안)을 마련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안)은 과학기술인력 공동실무협의회 (7.12)를 시작으로 심의가 시작되어, 인적자원개발회의(7.18)와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의 운영위원회(7.29)를 거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8.29)에서 심의를 받고 최종 확정([그림 1] 참고).
- 확정된 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추진체계로서 기능할수 있게 됨에 따라 종래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추진해 오던 이공계 인력 관련정책을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됨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소관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시책의 상위 수준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중장기 수준의 5년 주기로 제시하고, 아울러 제반 관련시책의 연도별 추진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드백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이공계 인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그림 1]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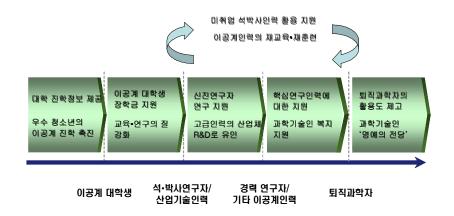


Ⅱ.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은 전주기적 이공계 인력 양성·활용에 역점을 두고 참여정부에 서 최초로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이공계 인력 종합정책
 - 전체 5대 영역, 14개 중점 추진과제, 42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 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과적인 활용, 그리고 처우개선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인력을 육성・활용・지원 하는 내용을 포괄
- 기본계획상 '이공계 인력'이란 이학·공학 분야와 관련 학제간 융합분야 (이하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이공계 분 야의 학위나 산업기사 또는 동등이상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미

- 이는 일반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과학기술인'보다 더 큰 포괄적인 인력개념
- 기본계획상 '이공계 인력 전주기'란 청소년이 이공계로 진입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기간과 이공계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퇴직후 경력개발과 활동을 지속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서 이공계 대학 진입이후 이공계인으로서 교육받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전체 주기를 의미([그림 2] 참고).

[그림 2]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모식도



- 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 14개 중점 추진과제
 - 1. 제1영역: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혁신(대학운영혁신 중심)
 - 가.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다양하고 객관화된 대학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개발·적용하고 교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평가에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의 주요정

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

- 나. 대학간 대학내 경쟁 촉진과 자율성 강화
- 연구비 중 간접경비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비관리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의 연구비관리능력을 제고하며, 이공계 대학교원에 대한 성과보 상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학간·대학내 경쟁을 촉진
- 다.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질 제고
- 이공계 학부과정에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커리큘럼의 다양화·모듈화를 통해 진로 다변화를 추진하며,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확 산을 통해 이공계 졸업생의 질적 수준을 제고
- 2. 제2영역: 핵심 연구인력 양성(대학 연구 역량 제고 중심)
- 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대학별 특성화를 바탕으로 학문분야별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연구 인 프라를 확충하며, 차세대 융합 신기술과 학제간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핵심연구인력 양성
- 나. 이공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고,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해외 현장 인턴십 범위를 확대

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

- 적정수준의 연구수당 지원, 기숙사 확충,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이공계 대학(원)생의 교육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학자금 융자 확대, Fellowship제도의 도입 · 운영,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등을 추진
- 3. 제3영역: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산학 연계 촉진 중심)

가. 산·학·연 연계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 · 추진하고 기업의 대학투자확대 유도,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첨단 핵 심인력의 배출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주문형 맞춤교육 활성화
- 산업체 우수인력의 대학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이공계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 우대와 겸임교수 임용의 확대,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강화를위한 교수 연구년제 운용의 개선
-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용한 우수 이공계 학생의 취업과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의 촉진,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특성을 고 려한 '산학연 협력연구실'제도 등을 기획·추진

나. 산학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

- 글로벌 혁신기업의 미래성장 동력분야 발굴·지원을 위한 차세대 핵심연 구인력의 양성,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종사할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R&D센터의 대학내 클러스터링 추진
- 중소기업을 위한 우수 현장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기업간 협력과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역

량의 확대 추진

- 다.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계속교육 강화
- 현장 기술인력의 직업경쟁력 유지·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반·산업·전 문대학의 재교육·계속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대학원 등에 경력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업체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기능을 보강
- 라. 산학연계에 의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
- 대학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산업체간 네트워킹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Connect Korea'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대학의 연구인력・기술의 활용과 산업체 기술개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R&D 전문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
- 4. 제4영역: 이공계 인력 복지 지원(지속적인 활용촉진 중심)
- 가.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복지향상 지원
-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며, 국내외 이공계 인력의 지속적 활동이 가능한 여건조성을 통해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

나. 이공계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및 취업 촉진

- 국가과학기술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활용을 확대하며, 정부연구 개발사업을 통한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 소·벤처기업의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인력 채용을 지원
- 5. 제5영역: 이공계 인력 인프라 지원(종합지원 기반구축 중심)
- 가. 이공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동지원 기반 확충
- 다양한 방법으로 이공계 유망분야 정보와 과학기술 마인드를 확산하고, 동일계전형 입시제도를 개선하여 이공계 대학 연계진학 기반을 마련하 며, 연구개발 전문화를 위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취 업을 중개・알선하는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운영
- 나. 이공계 인력 정보지원 기반 구축
-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표 2> 5대 영역별 14개 중점 추진과제 요약

여 여	즈거 호키 쾨케
영 역	중점 추진 과제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혁신 (대학운영혁신)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대학간·대학내 경쟁 촉진과 자율성 강화
(네워진 8위간)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질 제고
핵심 연구인력 양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대학 연구 역량 제고)	이공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 구축
(대학 전기 극당 세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
	산·학·연 연계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수요지향적 인재양성	산학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
(산・학 연계 촉진)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 계속교육 강화
	산학연계에 의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이공계인력 복지 지원	과학기술인의 지속적 연구여건과 복지향상 지원
(지속적인 활 용촉 진)	이공계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및 취업 촉진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	이공계에 대한 이해와 활동지원 기반 확충
(종합지원 기반구축)	이공계인력 정보지원 기반 구축

Ⅲ.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기본계획에는 우수 청소년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이 공계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과학기술인이 되어 산업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신나게 일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안되어 있음
-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관계 부처와 시·도에서 10월 15일까지 소관분야에 대하여 2006년에 추진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면 과학기술혁 신본부에서 이들을 종합·조정하여 2006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과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과제별로 실행해 나갈 계획
- 혁신본부에서는 이공계로 진입하는 우수하고 비전있는 학생들이 자신들 의 미래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계획은 이공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과 과학기술인 모두가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어 내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부록 4> 인적자원개발 일지 예시

일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u>'</u>	10 월	1 , 1 = 2
4일			[블롬버그 통신] 미국 교육의 질 저하로 기업들이 수 학과 과학 분야의 적당한 인제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GE), 인텔, IBM 등 10여 개 기업들이 중등 교육 개선을 위해 매년 30억 달러(3조1천25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미 상공회의소가 오는 5~7일 위상턴에서 주최하는 기업교육 네트워크(BEN) 정상회의에 주요 미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주와 지방 정부의교육 책임자들과 영제 교육을 위한산학 협동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보도, 이번 회의는 지난달전미 제조업자 협회(NAM)가 '미국노동력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교육의 질 저하로 전 지구적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밀려 날우러가 있다고 지적한테 이어 열리는 것임.
5ଥି	[과학기술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제공 및 시험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천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2006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여성가족부]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아 고학력여성의 전문분야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사업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히고 하반기에 신규서범사업으로 일대일 집중 취업지원사업, 유망취업전원 접근 일대일 집중 취업지원사업, 유망취업전계, 작극적인 취업시스템 가축(중소기업 DB 구축, 취업시스템 구축(중소기업 DB 구축, 취업시스템 구축(중소기업 DB 구축, 취업시스템 기축등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발간하여 현장 실업계 교사들이활용할 수 있도록 장학자료를 일선 연장에 보급했다고 밝힘.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9월 7일 파리에서 개최된 한국경제검토회의 에서의 회원국 간 토의 결과를 토대 로 작성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romic Surveys KOREA)"를 발표하 고 한국이 향후 4.5%~5% 수준의 감 재성장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재정 분권 화 등 재정의 효율성 제고, 핵신시스 템 향상, 노동, 기업, 금융 부문에 대 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 필요하다고 권고
6일 (계속)	「교육인적자원부」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 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 험,(7월 28일, 8월 11일 참조)	[건국대서울지방노동청] 취업지원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건국대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취업동향 등 고용정보를 제공받다 포 취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 진행 등을 지원 받게 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일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6일	[기획에산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사 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 리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218의 원 많은 2909억 원을 반영, 13만4000명 에게 사회적 일자리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힘.		
7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해외인력 특혜비자 추천 관련 3개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IT벤처기 업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05 해외점단기술인력 워크숍'이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된다고 밝힘. [교육인적자원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원 외 대학원 입(편입)학을 허용, 방송·통신 대학이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수 있는 근거 및 복수권공 운영 근거를 마련, 의료분야 정원 축소를 위한 의료학과 학사편입학 배계 및 정원외 입학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을 끝자로 하는 고등교육 법시행령 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국적업능력개발원]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교육, 학업성취, 교육격 차, 건로의식과 진로결정, 문제행동 등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3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됨.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04년 현 재 중 3년생 2천명, 실업계고 3년 생 2천명, 일반계고 3년생 2천명 과 이들 학생의 학부모, 담임교 사,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향후 1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 가 이뤄질 예정임. [한국장에인고용학진공단]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함 수 있는 포털사이트(Work Together) 구축했다고 밝히고, 1개월간의 시 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11월에 대국 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 명	((일)내각뷔 초중·고교 학부모 3천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학교제도에 관한보호가 설문조사(1천270명 응답)에 마르면 응답자의 70%가 학력향상에는 학교보다 학원이나 예비학교가 낫다고 대답했다고 밝히고 현재의학교교육에 '불판'이라는 응답은 43%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사람은 13%에 그쳤다고 발표
9일		[한양사이비대학교]을 2학기 이 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58.7%로, 2002년 31.2%보다 27.5% 포인트 올라가 같은 기간 남학생 비율이 68.8%에서 41.3%로 낮아졌으며, 이 기간에 경희사이버대도 여학생 비율이 33.7%에서 56.3%에 43.7%로 낮아졌고, 열린사이버대도 여학생 비율이 38.1%에서 46.6%로 높아졌다고 밝혀 여학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대의 특성상 학생 중대다수가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20~3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	
10일	[교육인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 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 령'을 입법예		
11일	[노동부] 새로이 출범하는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위원장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위원회는 정부 일자 리 정책 총괄조정,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일 자리 창출, 사람중심 경영 지원, 고 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을 범정부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서울대학교] 2005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 한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모집 입학생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 힘.	

일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12일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인적자원개발선 도·지원기란으로 개편하고, 기능대학 을 통합·대행화하고 지역별로 분권화 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 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 책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14일	[교육인적자원부] 각계 인사로 구성된 '2단계 BK21기 획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 고 2단계 BK21 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고하고, 세계수준의 연 구중심대학 육성과 과학기술 인문사 회 분야 고급연구인력 양청(연간 2만 명)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7 단 간단통 2조 1천억원이 투입되는 2 단계 BK21사업의 구체화 작업이 본 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함.		
15일	[교육인적자원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교육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에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을 비롯한 초등교육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교사교육프로그램 합동 발표회 개최		
16일	[산업자원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고급 전문인 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올해 41억 원의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17일	[특허청] 지식재산분야 선도대학인 한국과학 기술원과 약정식을 갖고, 카이스트의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중합서비 스를 지원한다고 밝힘.		[한국교육총연명]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자로 제 작 활성화를 위한 제36회 전국 교육 자료전을 17~23일 개최
18일	[노동부] 2004년 임금구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5세로 2003 보다 0.4세 높아져 근로 연령의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대졸이상학력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28.9%로 203년의 28.7%에 비해 0.2%p 증가하였으며, 지난 290 년의 14.4%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 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고 밝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도상 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교육 정보화 협력사업을 전담할 e-러닝 국체협력단 현관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다고 밝힘셋째 아이를 낳은 교육부 직원에 게 출산준비물 세트와 보욕료 100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일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19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된 유지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힘. [통계정]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원해 용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중 계약적 근로자(기간제)의 비중이 18.2%로 작년보다 1.1%p 상승했고, 천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교장 들과 담당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식 교육을 통한 산학연 계교육의 활성화란 주제를 가지고 운영보고회를 개최	
20일	[중소기업청]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을 도모하 여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 소를 목적으로, 2004년 청년채용패키 지사업을 실시한 결과, 7,468명에 대 해 교육을 실시하여 42.8%인 3,194명 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1일	[파학기술부] 세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하고 정부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산업자원부] 창의적 공학교육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창의적 공학교육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정] 학부모 등 서울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 열 만들기 위해, 서울교육정책의 품질을 회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서울교육정책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힘.		[사람인] 직장인과 구직자 587명을 대상으로 "취업 시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영어의 분야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75.6%) 과 구직자(56.7%) 모두 '영어회화'를 꼽았으며, 실제로 취업을 위해 한 공 부는 '토익(76.4%)이라는 대답이 가 장 많았고 발표.
22일	[인천시교육청] 인천시내 올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 9천786명중 전체 64.4%인 6천311명 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 30.5%인 2천 985명만이 직장을 백했다고 밝힘.		
24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대학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 정개정안』을 관보게재를 통해 2005.10.25(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힘.		

일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25થું	[노동부] •2005년 5월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 역여성의 육이부담을 덜기 위하여 청어휴직제도의 운영과 함께, 직장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긴하고 있었지만, 취업모의 수요 이 충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10명 중 1명이 회사를 그만 두는 실정이라고 밝힘.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협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추집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증이라고 밝힘.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의 대상 '근로 강에 '정난실업자' 등 취업할 이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4월 6일 확정된 국가고용자원서비스 핵신방안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가정)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정보(가정)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정보(가정)공기 보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음. [정보통신부] 글로벌 IT산업 및 u-Korea를 통한 선진경제 건설을 주제로 'IT산업전망 전원경제 건설을 주제로 'IT산업전망 단계된 건설을 주제로 'IT산업전망 된 건설을 주제로 'IT산업전망 된 건설을 구제로 'IT산업전망 된 건설을 준제로 'IT산업전망 된 건설을 구제로 'IT산업전망 된 건설을 구설을 된 IT산업전망 된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산업연구원]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와 개 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 직접교 육의 핵심인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 문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의 적정 규모를 주 정하고, 수요에 부동하 직업교육체 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 획되었음.	
27일	[산업자원부] 3월 출범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 의제(Sector Council)가 인적자원 개 발 및 양성과 관련된 업종별 애로사 항(Bottle-neck)을 해소하고, 인력수급 의 양적.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산업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힘.		
28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대학 산학합력 포럼을 개최하였 으며, 산학합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대학의 연구 및 기술 수준을 획 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기업은 대학 을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 다고 밝힘		[인별코리아교육인적자원위] 21세기 국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고, 교육혁신을 통한 한국 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협 력하기로 함.
31일	[교육인적자원부 2단계 BK21 기획자문위원회 사물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천역 원씩 총 2조 1천역 원을 투입 하여 추진될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연간 2만여 명의 대화원 식박사생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힘. [산업자원부] 중소·중건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핵신 역량을 갖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기업의 경영능력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시를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국은행]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오용해온 통계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인 경제통계시스템(ECOS; 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bok.or.kr)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시스템을 개통	

<부록 5> 인적자원개발 통계 예시

인적자원개발 통계

- <표 1> 2005 취업통계 개황·101
- <표 2> 각급 학교 취업률 추이 · 101
- <표 3>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취업률 변동 추이 · 102
- <표 4> 성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 102
- <표 5>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 103
- <표 6>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류(소분류) 상위 10위 · 104
- <표 7> 계열별 주요 진출 직업(소분류) 상위 5위 · 105
- <표 8> 계열별 전공일치도 106
- <표 9>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107
- <표 10>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108
- <표 11>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109
- <표 12>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110
- <표 13> 행정구역별 인구변화・111
- <표 14> 인구이동 변화·112
- <표 15> 행정구역별 인구이동(2005년 2/4분기) ⋅ 113
- <표 16>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전체)·114
- <표 17>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여자)·115
- <표 18>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15~29세 청년층) ⋅ 116
- <표 19>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55세 이상 중ㆍ고령층)ㆍ117
- <표 20>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18
- <표 21>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 119
- <표 22> 청년층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 120

<표 1> 2005 취업통계 개황

(단위: 개,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수	취업률	취업구분					
十七	4 亚十	글립시구	게임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미상	
총괄	360(11)	530,417	74.1	357,093	42,135	6,077	115,873	9,239	
전문대학	158	228,336	83.7	177,919	12,221	3,498	31,439	3,259	
대학	163(11)	268,833	65.0	154,542	28,652	2,449	77,822	5,368	
교육대학	11	5,595	87.8	4,881	16	18	631	49	
산업대학	21	27,397	75.3	19,652	1,201	111	5,947	486	
각종학교	7	256	47.1	99	45	1	34	77	

- 주: 1) 학교수는 조사시점 기준 졸업자가 있는 학교수를 의미함.
 - 2) 졸업자: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 3) 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입대자수-진학자수)×100
 - 4) 취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 5) 진학자 = 국내진학자(대학, 대학원) + 국외진학자(대학, 대학원)
 - 6) 미취업자 = 국가고시준비 + 진학준비 + 취업준비 + 기타
 - 7) ()는 분교임. 학교수 전체에는 미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보 도자료

<표 2> 각급 학교 취업률 추이

(단위: %)

년 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1990	18.7	84.0	71.8	55.0
1995	26.4	90.9	74.2	60.9
2000	15.5	88.8	79.4	56.0
2001	18.9	88.2	81.0	56.7
2002	18.1	90.0	80.7	60.7
2003	17.6	90.2	79.7	59.2
2004	14.0	87.6	77.2	56.4
2005	12.1	86.3	83.7	65.0
2004	14.0 12.1	87.6 86.3	77.2	56.4

- 주: 1)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 2) 전문대학에는 각종학교(전문)과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이,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원격대학(대학) 등이 불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표 3>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취업률 변동 추이

(단위: %)

										, ,	, , , , ,
연도 학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문대학	74.2	78.2	75.5	66.3	68.1	79.4	81.0	80.7	79.7	77.2	83.7
대학	60.9	63.3	61.8	50.5	51.3	56.0	56.7	60.7	59.2	56.4	65.0

주: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표 4> 성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11. 0, 707
구분	연도	졸업	자수	취약	업률	진호	학률
干证	선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99,452	124,037	81.0	78.2	8.7	5.0
	2001	102,501	130,471	82.7	79.8	8.8	5.7
전문	2002	103,303	135,811	82.9	79.2	9.3	6.8
대학	2003	108,087	138,702	82.4	77.7	9.1	7.5
	2004	106,095	120,791	79.1	75.6	7.8	5.6
	2005	106,061	122,275	84.8	82.7	6.9	4.0
	2000	113,573	100,925	58.6	53.4	14.3	9.7
	2001	127,259	112,443	59.0	54.1	12.6	9.9
대학	2002	126,879	117,973	62.3	59.1	13.4	10.6
414	2003	134,695	123,431	61.6	56.7	13.0	11.1
	2004	135,067	131,991	59.3	53.5	11.8	10.4
	2005	136,593	132,240	67.7	62.3	11.3	10.0

주: 1)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²⁾ 진학률=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보 도자료.

<표 5>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

							(단위: %)
학제 및 계약	연도 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문대학	총계	79.4	81.0	80.7	79.7	77.2	83.7
	인문계열	73.4	74.3	72.6	74.2	71.9	79.3
	사회계열	81.0	82.7	81.7	81.4	79.2	83.9
	교육계열	89.8	89.9	88.8	89.4	87.1	89.6
	공학계열	81.1	82.2	82.2	81.5	78.9	84.5
	자연계열	73.1	76.4	77.8	76.8	74.6	81.4
	의약계열	76.8	78.3	79.5	73.5	72.8	84.5
	예체능계열	76.4	79.1	78.1	76.6	75.2	82.0
대학	총계	56.0	56.7	60.7	59.2	56.4	65.0
	인문계열	50.9	52.2	57.6	56.4	53.0	62.0
	사회계열	54.3	53.9	58.0	55.4	51.7	59.8
	교육계열	54.5	52.4	61.1	59.1	53.7	60.8
	공학계열	59.5	59.7	60.8	60.1	59.1	67.2
	자연계열	49.7	52.4	56.9	55.1	50.4	60.4
	의약계열	88.1	84.8	89.8	87.2	88.4	89.9
	예체능계열	58.9	59.3	64.5	64.4	60.9	7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표 6>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류(소분류) 상위 10위

(단위: %)

								(211.70)
구분		전문다	학		대학			
순위	전공분류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전공분류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1	반도체 세라믹	94.4	130	117	의학	94.4	3,489	3,224
2	광학:에너지	93.6	1,564	1,369	한의학	93.3	874	760
3	금속	93.1	243	215	간호학	93.1	3,591	3,330
4	항공	92.5	303	246	치의학	92.9	845	732
5	뷰티아트	92.1	6,977	6,280	초등교육학	90.8	229	208
6	해양	91.3	182	136	약학	86.7	1,532	1,072
7	건설	90.4	1,603	1,320	체육	83.9	5,268	3,670
8	농수산	90.2	216	166	디자인일반	81.7	1,189	872
9	유아교육	90.0	9,787	8,534	교양경상학	79.7	646	479
10	기전공학	88.3	1,535	1,289	특수교육학	78.5	998	764

주: 1) 전공 소분류 : 전문대학 76개, 대학 121개.

²⁾ 초등교육학 : 교육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의 초등교육과 혹은 초등교육학과를 의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표 7> 계열별 주요 진출 직업(소분류) 상위 5위

(단위: %)

					(인귀・%)
직업 전공	1위	2위	3위	4위	5위
총괄	일반행정사무원 6.1	사무보조원 3.8	문리 어학계 학원 강사 3.5	경리사무원 2.6	예능계 학원 강사 2.3
인문계열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14.4	일반행정사무원 11.2	사무보조원 7.1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4.1	마케팅 관련 사무원 4.1
사회계열	일반행정사무원 11.7	경리사무원 5.7	사무보조원 5.2	마케팅 관련 사무원 4.8	회계사무원 4.2
교육계열	유치원교사 26.9	보육교사 및 보육사 22.4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12.5	중등학교교사 11.0	특수학교교사 3.4
공학계열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 어) 6.2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 어) 5.0	건축공학기술자 4.6	일반행정사무원 4.4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 학포함) 3.5
자연계열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6.6	일반행정사무원 5.5	사무보조원 4.9	영양사 3.9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3.7
의약계열	간호조무사 23.1	간호사(조산사 포함) 14.5	의사 11.3	치과위생사 8.3	물리치료사 6.6
예체능 계열	예능계 학원 강사 14.4	시각디자이너 7.2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6.8	미용사 6.2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3.7
전문대학	일반행정사무원 4.7	사무보조원 4.5	간호조무사 4.2	경리사무원 3.9	보육교사 및 보육사 3.4
인문계열	사무보조원 11.6	일반행정사무원 8.5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 7.3	경리사무원 7.0	여행관련사무원 6.5
사회계열	일반행정사무원 9.4	경리사무원 8.5	사무보조원 6.2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 48	회계사무원 4.5
교육계열	유치원교사 45.6	보육교사 및 보육사 40.2	예능계 학원 강사 1.7	4.8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1.4	경리사무원 1.3
공학계열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4.6	일반행정사무원 4.3	사무보조원 4.1	1.4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 어) 3.3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3.3
자연계열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 8.4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7.3	사무보조원 6.5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5.0	주방보조원 4.4
의약계열	간호조무사 36.9	치과위생사 13.3	물리치료사 8.5	치과기공사 5.5	임상병리사 5.4
예체능 계열	미용사 9.8	예능계 학원 강사 7.9	시각디자이너 7.1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6.8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5.8
대학	일반행정사무원 7.7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7.1	마케팅 관련 사무원 3.4	예능계 학원 강사 3.1	전자공학기술자 (엔지니어) 2.9
인문계열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18.7	일반행정사무원 12,2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 5.8	사무보조원 5.2	마케팅 관련 사무원 5.1
사회계열	일반행정사무원 14.3	마케팅 관련 사무원 7.5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5.2	금융사무원(보험사무 제외) 4.6	사무보조원 4.1
교육계열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25.4	중등학교교사 22.7	유치원교사 7.0	특수학교교사 6.9	초등학교교사 3.6
공학계열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 어) 10.5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 어) 10.2	건축공학기술자 6.5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 학포함) 4.7	일반행정사무원 4.6
자연계열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 11.3	일반행정사무원 7.6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 원 제외) 4.5	영양사 4.4	사무보조원 3.7
의약계열	간호사(조산사 포함) 30.9	의사 30.2	약사 및 한약사 9.2	한의사 7.0	치과의사 6.6
예체능 계열	예능계 학원 강사 25.4	시각디자이너 7.4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 68	제품디자이너 5.2	인테리어디자이너 4.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표 8> 계열별 전공일치도

(단위: %)

			(전기: 70)
학제 및 계일	연도	취업률(%)	전공일치도(%)
전문대학	총계	83.7	71.4
	인문계열	79.3	41.4
	사회계열	83.9	66.2
	교육계열	89.6	91.3
	공학계열	84.5	71.1
	자연계열	81.4	63.6
	의약계열	84.5	90.8
	예체능계열	82.0	74.5
대학	총계	65.0	69.9
	인문계열	62.0	49.8
	사회계열	59.8	60.2
	교육계열	60.8	83.1
	공학계열	67.2	78.6
	자연계열	60.4	59.6
	의약계열	89.9	97.5
	예체능계열	74.0	83.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10.01).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보 도자료.

<표 9>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단위: 명)
۸- n	전체			an m	11.11
연도, 월		남자	여자	취득	상실
1996	4,330,885	3,155,323	1,175,562	1,519,322	1,395,985
1997	4,280,430	3,134,399	1,146,031	1,345,231	1,392,542
1998	5,267,658	3,765,621	1,502,037	2,963,828	1,975,706
1999	6,054,479	4,237,584	1,816,895	3,330,353	2,499,662
2000	6,747,263	4,633,208	2,114,055	3,695,723	2,981,558
2001	6,908,888	4,712,338	2,196,550	3,435,154	3,234,745
2002	7,171,277	4,832,458	2,338,819	3,692,771	3,404,669
2003	7,203,347	4,812,794	2,390,553	3,449,449	3,394,502
2004	7,576,856	5,020,208	2,556,648	3,764,995	3,364,005
2003. 1	7,158,507	4,827,710	2,330,797	294,107	305,396
2	7,159,428	4,824,718	2,334,710	280,359	277,536
3	7,181,595	4,827,495	2,354,100	367,169	342,958
4	7,215,625	4,842,334	2,373,291	341,374	304,880
5	7,222,142	4,841,998	2,380,144	294,602	286,199
6	7,185,525	4,816,065	2,369,460	275,276	309,789
7	7,160,796	4,797,795	2,363,001	305,675	327,997
8	7,156,950	4,793,912	2,363,038	253,373	255,305
9	7,151,033	4,784,071	2,366,962	245,166	249,481
10	7,158,207	4,783,619	2,374,588	287,135	278,796
11	7,180,015	4,797,637	2,382,378	261,507	239,025
12	7,203,347	4,812,794	2,390,553	243,706	217,140
2004. 1	7,217,414	4,826,802	2,390,612	253,211	240,080
2	7,293,529	4,870,106	2,423,423	344,590	272,524
3	7,357,988	4,900,326	2,457,662	413,601	347,302
4	7,418,084	4,930,564	2,487,520	357,811	298,822
5	7,460,088	4,950,039	2,510,049	317,828	272,703
6	7,486,494	4,962,372	2,524,122	318,123	286,488
7	7,489,061	4,966,300	2,522,761	328,403	320,855
8	7,492,299	4,969,446	2,522,853	279,683	272,460
9	7,508,316	4,976,041	2,532,275	268,223	249,219
10	7,523,984	4,982,552	2,541,432	300,352	281,374
11	7,550,835	4,998,664	2,552,171	300,518	269,970
12	7,576,856	5,020,208	2,556,648	282,652	252,208
2005. 1	7,580,688	5,040,290	2,540,398	342,843	335,304
2	7,629,678	5,069,225	2,560,453	279,543	226,848
3	7,695,612	5,102,196	2,593,416	450,474	379,335
4	7,759,829	5,133,187	2,626,642	404,128	335,720
5	7,812,982	5,158,975	2,654,007	380,026	320,779
6	7,876,467	5,194,649	2,681,818	375,210	307,536
7	7,907,681	5,214,191	2,693,490	364,832	328,921
8	7,935,140	5,229,249	2,705,891	324,598	293,251
9	7,964,850	5,242,516	2,722,334	326,454	292,023
-1 7 7 (1 - 0 7)	나이 『ㄱㅇㅂ치토	페이니 가 눇厂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표 10>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총계		직업능력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직훈련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997	199,880	58,873	184,007	28,362	1,949	2,262	13,924	28,249
1998	588,006	257,670	408,603	40,409	163,111	191,194	16,292	26,067
1999	1,029,156	418,184	781,408	82,764	226,356	306,172	21,392	29,248
2000	1,379,987	396,433	1,220,334	140,475	131,545	215,512	28,108	40,446
2001	2,154,046	380,222	1,555,402	167,175	530,942	152,510	67,702	60,537
2002	2,313,973	457,717	1,584,823	170,107	541,345	151,966	187,805	135,644
2003	2,228,566	440,114	1,661,978	180,838	439,265	131,990	127,323	127,286
2004	2,097,466	471,893	1,958,130	198,243	53,428	124,206	85,908	149,443
2003. 8	210,073	62,869	135,817	13,852	46,150	9,974	28,106	39,043
9	201,230	31,234	139,851	16,569	47,782	10,282	13,597	4,383
10	170,583	27,268	108,763	13,369	48,420	10,171	13,400	3,728
11	179,328	27,243	123,391	13,740	41,364	9,176	14,573	4,327
12	261,472	50,584	188,442	19,929	46,514	10,997	26,516	19,658
2004, 1	144,309	19,674	111,691	11,447	30,196	7,566	2,422	661
2	207,285	26,680	175,346	18,511	28,716	6,813	3,223	1,356
3	220,649	26,143	178,606	15,310	38,627	9,638	3,416	1,195
4	182,010	29,511	127,609	13,869	40,512	10,437	13,889	5,205
5	297,161	36,389	238,531	20,016	44,440	10,957	14,190	5,416
6	235,509	38,440	174,829	20,456	44,321	11,103	16,359	6,881
7	165,070	31,700	106,356	13,479	42,707	11,423	16,007	6,798
8	222,542	32,290	167,118	16,116	40,714	10,638	14,710	5,535
9	207,158	30,933	155,028	15,336	38,098	10,273	14,032	5,323
10	164,117	28,879	107,966	12,515	41,515	10,375	14,636	5,989
11	266,992	37,113	209,804	19,187	40,815	10,928	16,373	6,998
12	265,917	56,313	205,245	22,001	43,943	13,439	16,729	20,873
2005. 1 2	185,749 210,286	25,602 25,068	153,984 184,563	16,682 17,579	26,793 21,238	7,439	4,972	1,481 1,826
3	210,280	27,379	180,097	16,947	36,452	5,663 8,826	4,485 5,831	1,625
4	182,292	34,087	123,872	17,286	42,402	10,556	16,018	6,245
5	265,773	37,601	196,629	18,503	51,425	13,121	17,719	5,978
6	237,073	39,358	168,324	19,266	50,687	13,164	18,062	6,927
7	208,422	35,569	141,962	15,246	47,465	12,772	18,995	7,551
8	296,229	41,353	231,648	22,267	47,011	13,064	17,570	6,021
9	256,422	38,681	196,810	20,853	41,471	11,396	18,141	6,432

주: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내직업훈련지원급, 교육훈련지원급, 사업주양성훈련(자체, 위탁), 사업주향상훈련(자체, 위탁), 사업주향상훈련(자체, 위탁), 사업주향상훈련(자체, 위탁), 해외작능개발사업 등의 9개 사업으로 구성.
2) 기타는 유급휴가훈련, 정부위탁훈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수강장려금,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중소기업 컨소시업 등으로

⁷성.
3) 연도별 실적은 매년 말일 기준의 실질 지원인원과 금액이므로 사업에 따라 12개월 간의 월별 실적을 단순 합산한 수치와 는 차이가 날 수 있음.
4) 기타에 포함되어 있던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실적은 집계소요시간으로 인해 2004년 1월부터 월간분석에는 포함되지 않고,

생기에 내고하다 있는 근무가 다시하다가 가는 모이는 함께보고 가는 그로 함께 AMA를 기르기에 필요한다고 하는 분기별 분석에만 수록됨.

5)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정부위탁훈련은 각각 훈련비용 및 수당을 합산한 수치이므로 중복 집계될 수 있음.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표 11> 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1	1771· 1	!, %,	딱단된기
		총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 복지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	기타 산업	분류 불능
2004	건수	123,996	186	48	11,962	392	4,506	4,730	1,755	10,476	1,649	2,467	1,826	600	83,399
2004	인원	561,917	310	165	236,143	9,467	18,490	23,846	22,808	107,578	2,163	8,843	14,937	4,084	113,083
3/4	금액	113,829	58	30	27,788	1,527	4,385	4,706	4,570	16,303	1,164	3,258	2,923	775	46,343
	건수	126,069	158	77	12,319	406	4,047	3,991	1,426	10,238	1,037	1,683	1,385	529	88,773
4/4	인원	653,868	297	76	253,927	17,308	22,798	33,709	38,911	140,847	2,044	11,983	8,106	6,157	117,705
-/ -	금액	122,407	36	14	27,286	1,930	3,352	3,250	4,305	14,947	309	1,157	989	570	64,261
	건수	78,991	236	25	9,612	287	5,892	3,677	1,344	9,178	1,940	1,497	1,470	399	43,434
2005	인원	602,200	406	78	240,059	12,470	25,082	25,018	46,983	163,866	2,924	7,343	6,592	1,006	70,373
1/4	금액	78,049	53	10	22,545	1,544	3,918	2,397	6,006	16,743	599	816	1,049	155	22,216
	건수	145,152	203	47	13,732	348	6,463	5,312	1,902	12,297	1,526	2,556	1,827	756	98,183
2/4	인원	635,314	394	116	255,616	6,848	33,178	29,948	51,405	92,155	3,049	13,819	7,946	12,141	128,699
2/1	금액	113,509	50	19	31,669	934	4,806	3,019	4,941	11,654	661	1,865	1,144	1,137	51,612
	건수	46,231	75	17	5,010	184	1,636	1,480	522	4,110	506	620	527	267	31,277
2004.12	인원	265,917	119	22	84,488	6,404	10,069	14,788	11,463	70,029	1,490	3,936	3,589	4,410	55,110
2004.12	금액	56,313	15	3	10,722	822	950	1,375	1,531	6,913	207	413	443	351	32,569
	건수	25,244	60	7	3,588	146	1,356	1,267	468	3,277	512	521	553	126	13,363
2005.1	인원	185,749	129	8	60,240	1,670	6,212	10,979	19,190	52,914	1,039	3,540	2,475	544	26,809
2000.1	금액	25,602	14	2	7,499	271	703	1,059	2,291	5,364	1,035	372	342	48	7,444
	건수	20,380	50	7	2,507	65	1,613	965	390	2,390	738	370	389	130	10,766
2	인원	210,286	72	54		5,071	5,861		18,260	36,453	883	1,369	2,957	208	21,363
2	금액	25,068	11	6	109,094 8,004	552	1,671	8,641 727	2,652	4,821	194	1,309	527	208 44	5,716
	건수	33,367	126	11	3,520	77	2,920	1,445	486	3,510	676	606	530	158	19,302
3	인원	222,380	208	16	71,057	5,740			9,631			2,526		287	
3	금액	27,379	208	3	7,037	721	13,079 1,542	5,724 616	1,063	74,727 6,553	1,128 207	300	1,271 181	267 67	36,986 9,055
	건수	42,643	66	14	4,020	94	2,132	1,483	516	3,556	454	635	524	241	28,908
4	인원	182,292	92	45	63,453	785	10,052	8,494	5,042	30,500	712	3,768	2,109	4,825	52,415
4					'		,			,	123	3,768 409		400	
-	금액 건수	34,087 51,300	16 72	10 13	10,466 4,836	115 114	1,985 2,216	791 1,802	588 634	3,977 4,275	493	868	270 597	206	14,937 35,174
5	인원	265,773	130	48			15,324				977	5,756		2,063	62,996
3	금액		19	5	116,151	1,757 312		6,080	16,565	34,614	152	620	3,312	247	
	건수	37,601	65		10,078		1,636	674	1,678	3,843	525		357		17,980
,		50,266		20	4,657	137	2,054	1,936	706	4,232		917	649	270	34,098
6	인원 금액	237,073	180	26	76,177	4,328	7,840	15,596	29,853	27,297	1,428	4,397	2,567	5,287	62,097
	건수	39,358	14	4	10,590	499	1,030	1,327	2,558	3,151	255	485	356	394	18,694
-		49,675	58	15	5,284	154	1,909	1,900	807	4,262	646	1,082	706	273	32,579
7	인원	208,422	121	57	51,355	1,067	9,046	7,477	27,857	39,870	937	5,438	4,298	1,822	59,077
	금액	35,569	13	6	6,490	185	1,946	796	1,652	4,516	164	547	481	224	18,550
	건수	47,847	56	16	4,744	152	1,666	1,765	728	4,048	780	1,192	675	277	31,748
8	인원	296,229	359	30	124,678	5,998	7,079	8,803	9,216	65,717	1,472	4,510	5,495	5,179	57,693
	금액	41,353	30	4	10,950	545	860	883	1,351	7,265	233	456	507	491	17,778
_	건수	44,708	37	12	4,602	232	1,928	1,820	661	3,788	991	1,156	624	381	28,476
9	인원	256,422	67	12	72,471	11,067	10,928	10,037	35,836	46,658	1,397	6,235	3,310	6,629	51,775
	금액	38,681	9	2	9,487	1,139	1,132	954	3,531	4,571	257	676	366	693	15,866

주: 1)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등으로 구성.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²⁾ 실업자 재취직/정부위탁/여성가장 실업자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된 것임으로 분류불능으로 처리함.

³⁾ 분기별 자료는 고용동향분석, 월별 자료는 고용보험통계월보의 자료임.

<표 12>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27, 2, 0, 72						,, ,, ,,,,,,,,,,,,,,,,,,,,,,,,,,,,,,,,,				
		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	30인 ~	100인 ~	300인 ~	1,000인	분류불능
		711	26.16	JE 76	29인	99인	299인	999인	이상	보 미 큰 0
2004	건수	123,997	6,720	5,536	8,685	7,574	5,462	3,274	3,346	83,400
	인원	561,918	18,065	7,081	13,256	20,359	38,670	63,010	288,393	113,084
3/4	금액	113,828	5,089	2,976	5,005	5,464	6,961	8,884	33,107	46,342
	건수	126,069	6,450	5,530	8,154	7,139	4,880	2,517	2,626	88,773
4/4	인원	653,868	24,954	9,338	16,276	32,562	56,150	60,632	336,251	117,705
	금액	122,407	3,702	1,608	2,272	3,534	5,753	6,443	34,836	64,261
2005	건수	78,991	6,673	6,168	8,757	5,840	3,977	2,153	1,989	43,434
	인원	602,200	36,290	9,107	15,288	21,942	49,523	63,219	336,458	70,373
1/4	금액	78,049	5,146	1,436	2,343	2,667	5,043	6,570	32,629	22,215
	건수	145,149	6,961	7,575	11,362	8,740	6,226	3,267	2,838	98,180
2/4	인원	635,309	8,823	13,806	19,067	26,588	45,465	65,845	327,021	128,694
	금액	113,508	1,760	2,250	3,295	3,700	5,144	7,203	38,545	51,611
	건수	46,231	2,532	2,309	3,298	2,881	1,824	1,014	1096	31,277
2004. 12	인원	265,917	10,040	3,898	6,970	15,113	18,871	22,851	133,064	55,110
	금액	56,313	1,312	553	972	1,571	2,103	2,643	14,590	32,569
	건수	25,244	2,336	1,926	2,651	2,060	1,384	816	708	13,363
2005. 1	인원	185,749	9,511	3,635	5,331	8,268	17,293	26,177	88,725	26,809
	금액	25,602	1,119	512	820	1,029	1,721	2,820	10,137	7,444
	건수	20,380	1,939	1,682	2,312	1,496	1,061	585	539	10,766
2	인원	210,286	16,344	2,557	3,827	4,895	15,062	17,170	129,068	21,363
	금액	25,068	2,861	387	578	563	1,520	1,815	11,629	5,716
	건수	33,367	2,685	2,534	3,702	2,229	1,480	725	710	19,302
3	인원	222,380	11,746	3,960	6,354	8,849	16,660	19,173	118,652	36,986
	금액	27,379	1,299	610	952	1,024	1,714	1,857	10,867	9,055
	건수	42,643	2,147	2,291	3,387	2,424	1,717	968	801	28,908
4	인원	182,292	2,915	3,808	5,655	7,088	13,406	23,742	73,263	52,415
	금액	34,087	494	619	856	865	1,394	2,445	12,478	14,937
	건수	51,300	2,284	2,571	3,896	3,168	2,206	1,144	857	35,174
5	인원	265,773	3,066	3,812	6,922	9,570	15,066	25,808	138,533	62,996
	금액	37,601	506	616	1,005	1,212	1,617	2,606	12,059	17,980
	건수	50,266	2,474	2,618	3,912	2,986	2,162	1,044	972	34,098
6	인원	237,073	3,117	6,367	6,756	10,139	17,189	16,356	115,052	62,097
	금액	39,358	549	776	1,076	1,178	1,784	1,874	13,427	18,694
_	건수	49,675	2,721	2,660	4,017	3,106	2,298	1,230	1,064	32,579
7	인원	208,422	3,565	3,676	6,833	7,987	15,741	21,673	89,870	59,077
	금액	35,569	606	609	1,025	1,022	1,739	2,136	9,881	18,550
	건수	47,847	2,485	2,348	3,920	2,997	2,266	1,076	1,007	31,748
8	인원	296,229	3,837	4,834	6,187	12,937	17,567	30,479	162,695	57,693
	금액	41,353	594	660	914	1,535	1,776	3,109	14,986	17,778
0	건수	44,708	2,816	2,689	3,885	2,751	2,129	1,034	928	28,476
9	인원	256,422	15,098	9,163	6,102	6,955	25,048	30,184	112,097	51,775
	금액	38,681	1,642	1,236	943	853	2,582	3,031	12,528	15,866

주: 1) 상시근로자 기준.

²⁾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상시근로자수로 환산하여 해당규모에 포함.

³⁾ 실업자 재취직/정부위탁/여성가장 실업자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된 것이므로 규모는 5인 미만으로 처리함.

⁴⁾ 분기별 자료는 고용동향분석, 월별 자료는 고용보험통계월보의 자료임.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표 13> 행정구역별 인구변화

~#	13> '	맹성-	구역동	설 인	!구변	<u></u>									(단	위: 천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0	38,124	8,516	3,309	1,889	1,253	874	820	546	3,774	1,824	1,450	2,191	2,329	2,974	3,157	2,746	472
1981	38,723	8,796	3,400	1,940	1,315	913	843	571	3,876	1,820	1,446	2,182	2,318	2,937	3,139	2,749	479
1982	39,326	9,059	3,469	1,995	1,366	954	864	598	4,023	1,814	1,441	2,172	2,312	2,899	3,111	2,765	484
1983	39,910	9,317	3,527	2,047	1,412	992	887	625	4,247	1,796	1,432	2,151	2,291	2,848	3,067	2,784	489
1984	40,406	9,559	3,580	2,091	1,474	1,023	919	651	4,480	1,766	1,416	2,112	2,255	2,786	3,008	2,793	492
1985	40,806	9,725	3,628	2,129	1,541	1,053	952	676	4,697	1,740	1,403	2,075	2,221	2,729	2,954	2,790	493
1986	41,214	9,815	3,671	2,162	1,593	1,062	964	686	5,001	1,721	1,397	2,066	2,188	2,701	2,907	2,783	495
1987	41,622	9,932	3,725	2,196	1,647	1,069	974	703	5,291	1,692	1,390	2,056	2,153	2,659	2,867	2,774	496
1988	42,031	10,147	3,773	2,230	1,710	1,079	984	731	5,499	1,653	1,381	2,040	2,116	2,599	2,823	2,768	499
1989	42,449	10,379	3,803	2,267	1,785	1,100	1,003	762	5,691	1,607	1,373	2,018	2,080	2,539	2,774	2,765	502
1990	42,869	10,473	3,803	2,293	1,897	1,125	1,036	794	5,972	1,562	1,374	1,992	2,047	2,480	2,736	2,776	509
1991	43,296	10,461	3,817	2,332	1,979	1,154	1,084	829	6,294	1,547	1,383	1,949	2,022	2,396	2,732	2,806	510
1992	43,748	10,446	3,829	2,371	2,065	1,185	1,133	866	6,634	1,532	1,392	1,908	1,999	2,315	2,728	2,835	510
1993	44,195	10,420	3,839	2,408	2,153	1,215	1,183	903	6,988	1,516	1,400	1,866	1,974	2,237	2,722	2,861	511
1994	44,642	10,385	3,846	2,442	2,243	1,244	1,235	941	7,356	1,499	1,406	1,825	1,948	2,161	2,713	2,886	512
1995	45,093	10,342	3,852	2,475	2,334	1,274	1,287	980	7,738	1,482	1,412	1,784	1,922	2,089	2,702	2,909	512
1996	45,525	10,195	3,826	2,489	2,376	1,292	1,315	998	8,132	1,483	1,431	1,804	1,923	2,077	2,724	2,943	514
1997	45,954	10,116	3,803	2,496	2,421	1,317	1,339	1,016	8,449	1,489	1,452	1,831	1,923	2,065	2,745	2,975	516
1998	46,287	10,051	3,775	2,502	2,464	1,341	1,358	1,023	8,682	1,502	1,469	1,854	1,925	2,061	2,759	3,000	519
1999	46,617	10,036	3,752	2,512	2,494	1,361	1,378	1,027	8,893	1,513	1,483	1,870	1,930	2,055	2,771	3,020	522
2000	47,008	10,078	3,733	2,529	2,522	1,382	1,397	1,036	9,146	1,516	1,494	1,879	1,927	2,035	2,773	3,036	524
2001	47,354	10,081	3,714	2,539	2,552	1,397	1,418	1,050	9,459	1,513	1,499	1,878	1,914	2,010	2,757	3,043	528
2002	47,615	10,031	3,680	2,540	2,574	1,413	1,434	1,064	9,825	1,504	1,495	1,871	1,893	1,961	2,738	3,061	532
2003	47,849	10,014	3,642	2,545	2,577	1,418	1,454	1,072	10,165	1,493	1,490	1,864	1,868	1,926	2,707	3,081	534
2004	48,082	10,024	3,619	2,554	2,580	1,429	1,464	1,082	10,450	1,487	1,490	1,881	1,842	1,881	2,676	3,087	537
2005р	48,294	10,033	3,605	2,551	2,592	1,434	1,458	1,090	10,711	1,481	1,487	1,903	1,819	1,851	2,651	3,090	539
2006p	48,497	10,043	3,592	2,547	2,603	1,440	1,469	1,098	10,955	1,474	1,486	1,921	1,794	1,820	2,623	3,091	542
2007p	48,692	10,053	3,579	2,544	2,615	1,446	1,480	1,105	11,191	1,466	1,484	1,938	1,770	1,791	2,596	3,091	544
2008p	48,877	10,061	3,566	2,540	2,626	1,452	1,491	1,113	11,420	1,458	1,482	1,954	1,746	1,762	2,570	3,091	546
2009p	49,053	10,067	3,554	2,536	2,636	1,457	1,502	1,120	11,641	1,449	1,479	1,970	1,724	1,733	2,548	3,090	547
2010p	49,220	10,072	3,543	2,531	2,646	1,462	1,513	1,127	11,854	1,441	1,477	1,984	1,701	1,706	2,526	3,088	549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2005), 「시도별 장례인구 특별추계」.

<표 14> 인구이동 변화

(단위: 천명)

	총이동		시도내이	に	시도간 이동			
년 도								
1001	이동자	이동률	이동자	이동률	이동자	이동률		
1981	8,195 (-0.8)	21.4	5,401 (-4.5)	14.1	2,793 (7.2)	7.3		
1982	8,616 (5.1)	22.1	5,806 (7.5)	14.9	2,810 (0.6)	7.2		
1983	9,796 (13.7)	24.7	6,585 (13.4)	16.6	3,211 (14.3)	8.1		
1984	9,043 (-7.7)	22.4	6,034 (-8.4)	15.0	3,009 (-6.3)	7.4		
1985	8,679 (-4.0)	21.4	5,754 (-4.6)	14.2	2,925 (-2.8)	7.2		
1986	8,660 (-0.2)	21.3	5,639 (-2.0)	13.8	3,021 (3.3)	7.4		
1987	9,309 (7.5)	22.6	6,065 (7.6)	14.7	3,243 (7.4)	7.9		
1988	9,969 (7.1)	23.9	6,617 (9.1)	15.9	3,352 (3.4)	8.0		
1989	9,316 (-6.5)	22.0	6,127 (-7.4)	14.5	3,190 (-4.9)	7.5		
1990	9,459 (1.5)	22.0	6,228 (1.7)	14.5	3,231 (1.3)	7.5		
1991	8,981 (-5.1)	20.6	6,023 (-3.3)	13.8	2,958 (-8.5)	6.8		
1992	9,032 (0.6)	20.5	6,172 (2.5)	14.0	2,860 (-3.3)	6.5		
1993	8,807 (-2.5)	19.7	5,943 (-3.7)	13.3	2,864 (0.1)	6.4		
1994	8,792 (-0.2)	19.4	6,052 (1.8)	13.4	2,740 (-4.3)	6.0		
1995	9,073 (3.2)	19.9	6,208 (2.6)	13.6	2,865 (4.6)	6.2		
1996	8,855 (-2.4)	19.2	6,019 (-3.0)	13.1	2,836 (-1.0)	6.1		
1997	8,820 (-0.4)	19.0	5,981 (-0.6)	12.9	2,838 (0.1)	6.1		
1998	8,156 (-7.5)	17.4	5,478 (-8.4)	11.7	2,679 (-5.6)	5.7		
1999	9,435 (15.7)	20.0	6,411 (17.0)	13.6	3,025 (12.9)	6.4		
2000	9,009 (-4.5)	19.0	6,164 (-3.9)	13.0	2,846 (-5.9)	6.0		
2001	9,290 (3.1)	19.4	6,358 (3.2)	13.3	2,932 (3.0)	6.1		
2002	9,584 (3.2)	19.9	6,590 (3.6)	13.7	2,995 (2.1)	6.2		
2003	9,517 (-0.7)	19.7	6,509 (-1.2)	13.5	3,008 (0.4)	6.2		
2004	8,568 (-10.0)	17.7	5,774 (-11.3)	11.9	2,794 (-7.1)	5.8		
2003. 2/4	2,445 (-0.9)	5.1	1,714 (-1.3)	3.5	731 (0.1)	1.5		
3/4	2,137 (3.4)	4.4	1,462 (4.0)	3.0	675 (2.2)	1.4		
4/4	2,508 (1.5)	5.2	1,725 (0.5)	3.6	784 (3.7)	1.6		
2004. 1/4	2,458 (1.3)	5.1	1,620 (0.7)	3.3	839 (2.5)	1.7		
2/4	2,043 (-16.4)	4.2	1,400 (-18.3)	2.9	643 (-12.0)	1.3		
3/4	1,864 (-12.8)	3.8	1,256 (-14.1	2.6	608 (-9.9)	1.3		
4/4	2,202 (18.1)	4.5	1,497 (19.2)	3.1	704 (15.8)	1.5		
2005. 1/4	2,299 (-6.5)	4.7	1,528 (-5.7)	3.1	770 (-8.2)	1.6		
2/4	2,200 (7.7) 스키드 저너(도키\r	4.5	1,523 (8.8)	3.1	676 (5.1)	1.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표 15> 행정구역별 인구이동(2005년 2/4분기)

(단위: 천명)

							(단위: 천명)
시 도	총	이동	시도니	배 이동	시도긴	<u></u> 이동	순이동
ハエ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 포이징
전 체	2,200	2,200	678	678	677	677	0.0
서울	519	539	203	203	142	162	-19.7
부산	141	154	61	61	30	42	-12.3
대구	112	120	45	45	23	30	-7.6
인천	131	129	43	43	41	40	1.7
광주	67	69	24	24	20	22	-2.5
대전	72	72	27	27	22	22	0.1
울산	40	40	13	13	11	12	-0.9
경기	556	513	147	147	190	148	42.4
강원	57	59	10	10	19	21	-2.5
충북	56	57	10	10	18	19	-0.4
충남	75	72	12	12	35	32	3.2
전북	70	76	17	17	17	23	-5.3
전남	67	70	12	12	26	29	-2.7
경북	90	91	14	14	36	37	-0.7
경남	128	121	33	33	40	33	6.8
제주	19	19	6	6	5	5	0.3
여 자	1,096	1,096	338	338	333	333	0.0
서울	260	269	101	101	71	79	-8.1
부산	72	78	31	31	15	21	-6.0
대구	56	60	23	23	11	15	-4.0
인천	65	64	22	22	20	19	0.9
광주	34	35	12	12	10	11	-1.2
대전	36	36	13	13	11	11	0.2
울산	19	20	7	7	6	6	-0.4
경기	274	254	73	73	93	73	20.0
강원	28	29	5	5	9	10	-1.3
충북	28	28	5	5	9	9	-0.5
충남	37	36	6	6	17	16	1.4
전북	35	38	8	8	8	11	-2.8
전남	33	34	6	6	13	14	-1.6
경북	45	45	7	7	18	18	-0.4
경남	64	60	17	17	20	16	3.5
제주	9	9	3	3	2	2	0.1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표 16>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전체)

(단위: 천명, %)

년 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인구
1997	34,851 (1.7)	21,782 (2.3)	62.5	21,214 (1.7)	568	2.6	13,070 (0.6)
1998	35,347 (1.4)	21,428 (-1.6)	60.6	19,938 (-6.0)	1,490	7.0	13,919 (6.5)
1999	35,757 (1.2)	21,666 (1.1)	60.6	20,291 (1.8)	1,374	6.3	14,092 (1.2)
2000	36,186 (1.2)	22,134 (1.9)	61.2	21,156 (4.3)	979	4.4	14,052 (0.2)
2001	36,579 (1.1)	22,471 (1.5)	61.4	21,572 (2.0)	899	4.0	14,108 (0.4)
2002	36,963 (1.0)	22,921 (2.0)	62.0	22,169 (2.8)	752	3.3	14,042 (-0.5)
2003	37,340 (1.0)	22,957 (0.2)	61.5	22,139 (-0.1)	818	3.6	14,383 (2,4)
2004	37,717 (1.0)	23,417 (2.0)	62.1	22.557 (1.9)	860	3.7	14,300 (-0.6)
2003. 3/4	37,391 (1.0)	23,096 (0.0)	61.8	22,295 (-0.5)	801	3.5	14,295 (2.8)
4/4	37,476 (1.0)	23,157 (0.7)	61.8	22,325 (0.0)	832	3.6	14,319 (1.6)
2004, 1/4	37,577 (1.0)	23,035 (2.5)	61.3	22,104 (2.2)	931	4.0	14,542 (-1.2)
2/4	37,672 (1.0)	23,576 (2.1)	62.6	22,744 (2.0)	831	3.5	14,097 (-0.8)
3/4	37,771 (1.0)	23,482 (1.7)	62.2	22,647 (1.6)	835	3.6	14.289 (0.0)
4/4	37,848 (1.0)	23,575 (1.8)	62.3	22,733 (1.8)	842	3.6	14,273 (-0.3)
2005. 1/4	38,010 (1.2)	23,221 (0.8)	61.1	22,247 (0.6)	975	4.2	14,789 (1.7)
2/4	38,275 (1.6)	24,004 (1.8)	62.7	23,126 (1.7)	878	3.7	14,271 (1,2)
3/4	38,426 (1.7)	23,893 (1.8)	62.2	23,026 (1.7)	867	3.6	14,533 (1,7)
2004. 3	37,608 (1.0)	23,303 (2.7)	62.0	22,371 (2.4)	932	4.0	14,306 (-1.7)
4	37,639 (1.0)	23,535 (2.6)	62.5	22,673 (2.3)	862	3.7	14,104 (-1.5)
5	37,671 (1.0)	23,571 (1.8)	62.6	22,738 (1.6)	833	3.5	14,100 (-0.3)
6	37,708 (1.0)	23,621 (1.9)	62.6	22,822 (2.0)	799	3.4	14,086 (-0.5)
7	37,744 (1.0)	23,616 (1.4)	62.6	22,750 (1.3)	865	3.7	14,128 (-0.3)
8	37,771 (1.0)	23,229 (1.3)	61.5	22,382 (1.2)	848	3.6	14,542 (0.6)
9	37,798 (1.0)	23,601 (2.3)	62.4	22,809 (2.3)	792	3.4	14,197 (-1.1)
10	37,825 (1.0)	23,711 (2.0)	62.7	22,901 (2.0)	809	3.4	14,114 (-0.6)
11	37,848 (1.0)	23,621 (1.6)	62.4	22,802 (1.7)	819	3.5	14,227 (0.0)
12	37,870 (1.0)	23,394 (1.9)	61.8	22,495 (1.8)	899	3.8	14,477 (-0.4)
2005. 1	37,923 (1.0)	23,058 (0.9)	60.8	22,078 (0.6)	980	4.2	14,865 (1.1)
2	38,011 (1,2)	23,074 (0.5)	60.7	22,086 (0.4)	989	4.3	14,937 (2.2)
3	38,097 (1.3)	23,531 (1.0)	61.8	22,576 (0.9)	956	4.1	14,566 (1.8)
4	38,184 (1.4)	23,839 (1.3)	62.4	22,934 (1,2)	904	3.8	14,346 (1.7)
5	38,274 (1.6)	24,051 (2.0)	62.8	23,199 (2.0)	852	3.5	14,223 (0.9)
6	38,368 (1.8)	24,123 (2.1)	62.9	23,246 (1.9)	878	3.6	14,245 (1.1)
7	38,403 (1.7)	24,072 (1.9)	62.7	23,184 (1.9)	888	3.7	14,331 (1.4)
8	38,428 (1.7)	23,689 (2.0)	61.6	22,847 (2.1)	843	3.6	14,739 (1.4)
9	38,448 (1.7)	23,918 (1.3)	62.2	23,048 (1.0)	870	3.6	14,530 (2.3)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동월)대비 증가율.

^{2) 2005}년 6월 통계부터 공식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되어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실업통계 기준을 따라 작성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17>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여자)

(단위: 천명, %)

						(단위: 선명, %)
- 년 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F 32	06/1061	071201	DATE	11 日71	E 11/1	616	활동인구
1997	17,965 (1.6)	8,938 (3.5)	49.8	8,731 (2.7)	207	2.3	9,027 (-0.1)
1998	18,223 (1.4)	8,576 (-4.1)	47.1	8,090 (-7.3)	486	5.7	9,647 (6.9)
1999	18,451 (1.3)	8,785 (2.4)	47.6	8,337 (3.1)	448	5.1	9,665 (0.2)
2000	18,664 (1.2)	9,101 (3.2)	48.8	8,769 (5.2)	332	3.6	9,564 (-0.7)
2001	18,859 (1.0)	9,299 (2.2	49.3	8,991 (2.5)	308	3.3	9,560 (0.0)
2002	19,042 (1.0)	9,486 (2.0)	49.8	9,225 (2.6)	261	2.8	9,556 (0.0)
2003	19,220 (0.9)	9,418 (-0.7)	49.0	9,108 (-1.3)	310	3.3	9,803 (2.6)
2004	19,405 (1.0)	9,690 (2.9)	49.9	9,364 (2.8)	326	3.4	9,716 (-0.9)
2003.3/4	19,244 (0.9)	9,518 (-0.7)	49.5	9,217 (-1.4)	300	3.2	9,726 (2.5)
4/4	19,285 (0.9)	9,506 (0.2)	49.3	9,193 (-0.8)	313	3.3	9,779 (1.7)
2004.1/4	19,332 (0.9)	9,451 (3.6)	48.9	9,074 (3.2)	377	4.0	9,881 (-1.5)
2/4	19,386 (1.0)	9,809 (3.0)	50.6	9,481 (2.8)	328	3.3	9,577 (-1.0)
3/4	19,432 (1.0)	9,749 (2.4)	50.2	9,443 (2.5)	305	3.1	9,684 (-0.4)
4/4	19,471 (1.0)	9,750 (2.6)	50.1	9,456 (2.9)	294	3.0	9,721 (-0.6)
2005.1/4	19,549 (1.1)	9,536 (0.9)	48.8	9,165 (1.0)	371	3.9	10,013 (1.3)
2/4	19,672 (1.5)	9,993 (1.9)	50.8	9,651 (1.8)	342	3.4	9,679 (1.1)
3/4	19,742 (1.6)	9,952 (2,1)	50.4	9,637 (2.1)	315	3.2	9,790 (1.1)
2004. 3	19,350 (0.9)	9,617 (3.9)	49.7	9,217 (3.1)	400	4,2	9,732 (-1.8)
4	19,368 (1.0)	9,794 (3.8)	50.6	9,438 (3.4)	356	3.6	9,574 (-1.8)
5	19,386 (1.0)	9,806 (2.5)	50.6	9,485 (2.4)	320	3.3	9,580 (-0.6)
6	19,404 (1.0)	9,827 (2.6)	50.6	9,520 (2.6)	307	3.1	9,577 (-0.6)
7	19,420 (1.0)	9,805 (2.0)	50.5	9,492 (2.1)	313	3.2	9,615 (0.0)
8	19,432 (1.0)	9,589 (1.8)	49.3	9,276 (1.7)	313	3.3	9,844 (0.2)
9	19,445 (1.0)	9,853 (3.5)	50.7	9,563 (3.5)	290	2.9	9,592 (-1.5)
10	19,458 (1.0)	9,857 (2.7)	50.7	9,570 (2.8)	287	2.9	9,601 (-0.8)
11	19,471 (1.0)	9,772 (2.1)	50.2	9,495 (2.6)	277	2.8	9,699 (-0.1)
12	19,484 (1.0)	9,622 (2.9)	49.4	9,304 (3.1)	318	3.3	9,862 (-0.9)
2005. 1	19,510 (1.0)	9,443 (1.4)	48.4	9,078 (1.2)	365	3.9	10,067 (0.7)
2	19,549 (1.1)	9,450 (0.3)	48.3	9,073 (0.5)	377	4.0	10,099 (1.9)
3	19,589 (1.2)	9,717 (1.0)	49.6	9,344 (1.4)	373	3.8	9,872 (1.4)
4	19,630 (1.4)	9,893 (1.0)	50.4	9,539 (1.1)	354	3.6	9,737 (1.7)
5	19,672 (1.5)	10,037 (2.4)	51.0	9,703 (2.3)	335	3.3	9,634 (0.6)
6	19,715 (1.6)	10,050 (2.3)	51.0	9,713 (2.0)	338	3.4	9,664 (0.9)
7	19,730 (1.6)	10,011 (2.1)	50.7	9,690 (2.1)	321	3.2	9,719 (1.1)
8	19,744 (1.6)	9,808 (2.3)	49.7	9,516 (2.6)	292	3.0	9,936 (0.9)
9	19,751 (1.6)	10,037 (1.9)	50.8	9,706 (1.5)	332	3.3	9,714 (1.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18>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15~29세 청년층)

(단위: 천명, %)

							(단귀· 선명, %)
년 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인구
1997	11,724 (-0.2)	5,671 (-0.2)	48.4	5,349 (-1.3)	322	5.7	6,053 (-0.1)
1997	11,651 (-0.6)	5,387 (-5.0)	46.2	4,733 (-11.5)	655	12.2	6,264 (3.5)
1999	11,461 (-1.6)	5,264 (-2.3)	45.9	4,691 (-0.9)	574	10.9	6,197 (-1.1)
2000	11,243 (-1.9)	5,308 (0.3)	47.2	4,879 (4.0)	430	8.1	5,934 (-3.8)
2001	10,952 (-2.6)	5,227 (-1.5)	47.7	4,879 (4.0)	413	7.9	5,725 (-3.5)
2002	10,952 (-2.0)	5,160 (-1.3)	48.4	4,799 (-0.3)	361	7.0	5,491 (-4.1)
2002	10,368 (-2.7)	5,007 (-3.0)	48.3	4,696 (-4.0)	401	8.0	5,361 (-2.4)
2004	10,308 (-2.1)	4,990 (-0.3)	49.2	4,578 (-0.6)	401	8.3	5,361 (-2.4)
2003, 3/4			48.4				
4/4	10,335 (-2.6) 10,266 (-2.6)	5,005 (-2.5) 4,972 (-1.7)	48.4	4,633 (-3.6) 4,563 (-3.4)	372 409	7.4 8.2	5,331 (-2.7) 5,294 (-3.4)
2004,1/4	10,200 (-2.0)	5,064 (-0.4)	49.6	l '	472	9.3	5,151 (-4.3)
2/4	10,215 (-2.4)	5,064 (-0.4) 4,984 (-0.3)	49.0	4,593 (-1.0) 4,582 (-0.1)	402	9.5 8.1	5,151 (-4.3)
3/4	10,103 (-2.3)	4,984 (0.3) 4,966 (-0.8)		l '	374	7.5	5,155 (-3.3)
3/4 4/4	10,120 (-2.1)		49.1 49.1	4,592 (-0.9)	400	8.1	5,130 (-3.3)
2005.1/4	,	4,946 (-0.5)	49.1	4,547 (-0.4)	448	9.0	,
2/4	9,997 (-2.1) 9,927 (-2.3)	4,955 (-2.2) 4,855 (-2.6)	48.9	4,507 (-1.9) 4,477 (-2.3)	377	7.8	5,042 (-2.1) 5,072 (-2.1)
3/4	9,921 (-2.3)	4,820 (-2.9)	48.7	4,477 (-2.3)	368	7.6	5,072 (-2.1)
2004, 3	10,197 (-2,4)	4,991 (-0.2)	48.9	4,451 (-3.1)		9.1	5,206 (-4.4)
		/ ' '	48.7		456 399	8.0	5,224 (-4.3)
4 5	10,179 (-2.3) 10,161 (-2.3)	4,956 (-0.2) 5,005 (-0.9)	49.3	4,557 (-0.6) 4,598 (-0.3)	407	8.1	5,156 (-5.3)
6	10,148 (-2.2)	4,991 (0.3)	49.3	4,592 (-0,1)	399	8.0	5,157 (-4.5)
7							,
	10,137 (-2.2)	5,124 (-0.9)	50.5	4,718 (-0.9)	405	7.9	5,013 (-3.4)
8	10,120 (-2.1)	4,857 (-2.7)	48.0	4,486 (-2.9)	370	7.6	5,264 (-1.5)
9	10,103 (-2.0)	4,916 (1,4)	48.7	4,570 (1.2)	346	7.0	5,187 (-5.0)
10 11	10,086 (-2.0) 10,065 (-1.9)	4,930 (0.6) 4,930 (-0.4)	48.9 49.0	4,555 (0.5) 4,551 (0.2)	375 380	7.6	5,156 (-4.3) 5,135 (-3.4)
12	10,003 (-1.9)		49.0	4,531 (0.2)	444	7.7 8.9	5,065 (-2,2)
2005, 1	10,045 (-2.0)	4,978 (-1.7) 5,008 (-2.4)	50.0	4,534 (-1.7)	463	9.3	5,000 (-2,2)
2005. 1	9,998 (-2,1)	/	49.6	I ' '	403	9.0	
		4,963 (-2.2)		4,514 (-1.7)			5,036 (-2.1)
3	9,974 (-2.2)	4,894 (-1.9)	49.1	4,464 (-1.6)	431	8.8	5,080 (-2.4)
4	9,949 (-2.3)	4,854 (-2.0)	48.8	4,458 (-2.2)	396	8.2	5,095 (-2.5)
5	9,926 (-2.3)	4,858 (-2.9)	48.9	4,499 (-2.2)	360	7.4	5,068 (-1.7)
6	9,905 (-2.4)	4,851 (-2.8)	49.0	4,475 (-2.5)	376	7.8	5,053 (-2.0)
7	9,898 (-2.4)	5,004 (-2.3)	50.6	4,588 (-2.8)	416	8.3	4,894 (-2,4)
8	9,891 (-2.3)	4,769 (-1.8)	48.2	4,415 (-1.6)	354	7.4	5,123 (-2.7)
9	9,883 (-2.2)	4,686 (-4.7)	47.4	4,351 (-4.8)	336	7.2	5,197 (0.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19>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55세 이상 중・고령층)

(단위: 천명, %)

							`	UTI: 12			
년 도	생산가	능인구	경제활	동인구	참가율	취약	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견	
			. , .							활동	인구
1997	6,593	(4.0)	3,231	(5.8)	49.0	3,200	(5.3)	30	0.9	3,361	(2.3)
1998	6,816	(3.4)	3,138	(-2.9)	46.0	3,033	(-5.2)	105	3.3	3,678	(9.4)
1999	7,016	(2.9)	3,239	(3.2)	46.2	3,127	(3.1)	112	3.5	3,777	(2.7)
2000	7,219	(2.9)	3,275	(1.1)	45.4	3,210	(2,7)	66	2.0	3,944	(4.4)
2001	7,455	(3.3)	3,385	(3.1)	45.4	3,327	(3.6)	58	1.7	4,070	(3.4)
2002	7,735	(3.8)	3,554	(5.0)	45.9	3,507	(5.4)	48	1.4	4,181	(2.7)
2003	8,038	(3.9)	3,537	(-0.5)	44.0	3,481	(-0.7)	55	1.6	4,502	(7.7)
2004	8,333	(3.7)	3,727	(5.4)	44.7	3,662	(5.2)	65	1.7	4,606	(2.3)
2003 3/4	8,077	(3.9)	3,663	(-1.1)	45.4	3,604	(-1.5)	59	1.6	4,414	(8.5)
4/4	8,152	(3.9)	3,636	(0.6)	44.6	3,585	(0.2)	52	1.4	4,514	(6.7)
2004 1/4	8,225	(3.8)	3,465	(7.4)	42.1	3,398	(7.3)	67	1.9	4,760	(1.3)
2/4	8,299	(3.7)	3,820	(5.5)	46.0	3,755	(5.2)	65	1.7	4,478	(2,2)
3/4	8,370	(3.6)	3,813	(4.1)	45.6	3,747	(4.0)	67	1.8	4,557	(3.2)
4/4	8,441	(3.5)	3,808	(4.7)	45.1	3,750	(4.6)	58	1.5	4,633	(2,6)
2005 1/4	8,571	(4.2)	3,584	(3.4)	41.8	3,516	(3.5)	68	1.9	4,989	(4.8)
2/4	8,767	(5.6)	4,091	(7.1)	46.7	4,003	(6.6)	89	2,2	4,676	(4.4)
3/4	8,883	(6.1)	4,053	(6.3)	45.6	3,974	(6.1)	80	2.0	4,830	(6.0)
2004 . 3	8,249	(3.8)	3,660	(8.8)	44.4	3,589	(8.6)	70	1.9	4,590	(0.1)
4	8,273	(3.7)	3,796	(7.0)	45.9	3,729	(6.8)	67	1.8	4,478	(1.1)
5	8,298	(3.7)	3,817	(4.5)	46.0	3,752	(4.3)	65	1.7	4,482	(3.1)
6	8,323	(3.7)	3,848	(5.0)	46.2	3,784	(4.7)	63	1.6	4,475	(2.6)
7	8,347	(3.7)	3,782	(3.6)	45.3	3,712	(3.4)	71	1.9	4,565	(3.7)
8	8,370	(3.6)	3,784	(4.7)	45.2	3,716	(4.4)	69	1.8	4,586	(2.8)
9	8,393	(3.6)	3,875	(4.1)	46.2	3,813	(4.1)	61	1.6	4,519	(3.2)
10	8,417	(3.6)	3,941	(4.5)	46.8	3,885	(46)	56	1.4	4,476	(2,8)
11	8,441	(3.5)	3,854	(3.9)	45.7	3,792	(3.7)	61	1.6	4,588	(3.3)
12	8,465	(3.5)	3,630	(5.8)	42.9	3,574	(5.7)	57	1.6	4,834	(1.9)
2005. 1	8,508	(3.8)	3,470	(4.3)	40.8	3,406	(4.3)	64	1.8	5,039	(3.3)
2	8,571	(4.2)	3,506	(2.8)	40.9	3,439	(3.0)	67	1.9	5,066	(5.2)
3	8,636	(4.7)	3,775	(3.1)	43.7	3,701	(3.1)	74	2.0	4,861	(5.9)
4	8,701	(5.2)	3,999	(5.3)	46.0	3,925	(5.3)	76	1.9	4,702	(5.0)
5	8,767	(5.7)	4,111	(7.7)	46.9	4,018	(7.1)	98	2.3	4,655	(3.9)
6	8,833	(6.1)	4,163	(8.2)	47.1	4,067	(7.5)	97	2.3	4,670	(4.4)
7	8,862	(6.2)	4,059	(7.3)	45.8	3,976	(7.1)	83	2.0	4,803	(5.2)
8	8,886	(6.2)	3,998	(5.7)	45.0	3,920	(5.5)	77	1.9	4,889	(6.6)
9	8,900	(6.0)	4,101	(5.8)	46.1	4,024	(5.5)	77	1.9	4,798	(6.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20>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인귀・%)
년 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7	49.8	13.0	66.4	53.8	51.1	60.5	65.0	56.4	30.2
1998	47.1	11.9	61.1	51.5	47.5	58.6	62.7	53.4	27.9
1999	47.6	11.7	60.8	52.1	48.4	58.7	63.1	53.9	29.5
2000	48.8	12.6	61.2	55.9	48.8	59.3	64.3	53.5	30.2
2001	49.3	12.7	62.0	57.6	49.1	59.8	64.0	53.9	30.0
2002	49.8	11.9	62.6	59.5	49.9	59.4	64.0	54.3	30.1
2003	49.0	11.4	61.8	60.7	49.9	58.3	63.0	52.6	27.8
2004	49.9	11.1	62.8	63.9	50.4	58.9	64.2	53.2	28.3
2003.3/4	49.5	12.2	61.8	60.9	49.6	57.8	62.7	53.6	29.8
4/4	49.3	11.1	60.3	62.2	50.0	57.7	63.9	53.4	28.2
2004. 1/4	48.9	12.3	62.8	62.9	49.8	58.3	63.3	51.6	25.2
2/4	50.6	9.8	63.5	63.9	50.6	60.3	64.8	53.9	30.0
3/4	50.2	11.9	62.7	64.0	50.2	58.6	64.0	53.2	29.6
4/4	50.1	10.4	62.1	64.6	51.0	58.3	64.6	54.0	28.3
2005. 1/4	48.8	11.6	63.4	65.1	49.9	57.1	63.1	51.9	24.5
2/4	50.8	10.1	63.3	65.9	50.3	58.8	65.0	55.0	30.4
3/4	50.4	10.7	62.8	65.9	49.4	59.1	64.5	55.0	29.5
2004. 3	49.7	9.8	63.2	63.5	50.1	59.1	64.3	52.5	27.8
4	50.6	9.0	63.2	63.7	50.6	60.8	65.1	53.8	29.8
5	50.6	9.7	63.9	64.2	50.3	60.0	64.8	53.8	29.9
6	50.6	10.5	63.4	63.9	50.9	60.1	64.4	54.0	30.3
7	50.5	14.1	64.4	64.3	50.0	59.2	64.0	53.3	29.2
8	49.3	10.9	61.3	63.4	49.2	57.7	63.1	52.3	29.4
9	50.7	10.9	62.6	64.5	51.4	58.9	65.0	53.9	30.2
10	50.7	9.7	62.0	64.3	51.0	58.8	65.0	54.7	30.7
11	50.2	9.6	62.0	64.5	51.0	58.2	64.8	54.3	29.1
12	49.4	11.9	62.2	65.0	50.9	57.8	64.1	53.0	25.3
2005. 1	48.4	14.3	62.2	64.8	49.6	57.1	62.4	51.2	23.4
2	48.3	10.9	64.1	65.1	49.8	56.6	62.8	50.6	23.6
3	49.6	9.6	63.9	65.5	50.2	57.7	64.0	53.7	26.6
4	50.4	9.8	63.1	65.7	50.6	58.3	64.7	54.5	29.3
5	51.0	10.5	63.2	66.1	50.7	59.0	65.3	55.1	30.7
6	51.0	9.9	63.5	65.9	49.7	59.2	65.2	55.4	31.1
7	50.7	12.9	65.1	65.6	49.2	58.9	64.5	54.8	29.8
8	49.7	10.3	62.3	65.1	48.4	58.2	63.8	54.4	28.7
9	50.8	8.8	61.0	67.1	50.6	60.2	65.1	55.9	3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21>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단위: %)

							(= 11 /6)
	K-1	K-2	K-3	K-4	K-5	K-6	K-7
2000	0.6	1.8	4.1	4.4	5.1	4.8	5.5
2001	0.5	1.5	3.8	4.0	4.5	4.3	4.8
2002	0.4	1.0	3.1	3.3	3.6	3.6	3.8
2003	0.3	1.2	3.4	3.6	3.9	3.8	4.2
2004	0.4	1.3	3.5	3.7	4.1	4.1	4.5
2001. 1/4	0.6	2.1	4.9	5.2	5.8	5.9	6.5
2/4	0.5	1.5	3.6	3.8	4.3.	4.3	4.8
3/4	0.5	1.4	3.3	3.5	4.1	4.1	4.6
4/4	0.4	1.2	3.3	3.5	3.9	3.9	4.3
2002. 1/4	0.4	1.3	3.7	4.0	4.4	4.6	4.9
2/4	0.4	0.9	3.0	3.2	3.5	3.6	3.9
3/4	0.4	0.9	2.8	3.0	3.3	3.4	3.8
4/4	0.5	0.9	2.9	3.0	3.1	3.4	3.6
2003. 1/4	0.3	1.1	3.6	3.8	4.1	4.2	4.5
2/4	0.3	1.1	3.3	3.4	3.8	3.8	4.1
3/4	0.4	1.2	3.3	3.5	3.9	3.9	4.4
4/4	0.4	1.2	3.4	3.6	4.0	4.1	4.5
2004. 1/4	0.4	1.4	3.8	4.0	4.5	4.6	5.0
2/4	0.4	1.2	3.3	3.5	3.9	4.1	4.5
3/4	0.4	1.3	3.4	3.6	4.0	4.2	4.6
4/4	0.4	1.3	3.4	3.6	4.0	4.2	4.6
2005. 1/4	0.4	1.5	3.9	4.2	4.7	4.8	5.3
2/4	0.4	1.3	3.5	3.7	4.1	4.2	4.6
3/4	0.4	1.3	3.4	3.6	4.2	4.1	4.7

주: 노동력 불완전 활용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정의
K-1	6개월 이상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K-2	비자발적 전직실업자 ¹⁾ ÷경제활동인구×100
K-3	1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공식적인 실업률 통계)
K-4	4주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K-5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 ²⁾]÷[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K-6	[4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 ³⁾]÷경제활동인구×100
K-7	[4주실업자+불완전취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100

- 1) 이직시기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중 '직장의 휴폐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
- 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기타' 등이 이에 속함. 2) 구직 단념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로서 지 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말함. 3) 불완전취업자란 18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말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표 22> 청년층의 노동력 불완전활용 지표 추이

(단위: %)

							(UTI: 70)
	K-1	K-2	K-3	K-4	K-5	K-6	K-7
2000	0.8	2.0	7.6	8.1	8.8	8.5	9.2
2001	0.8	1.7	7.5	7.9	8.4	8.2	8.7
2002	0.8	1.1	6.6	7.0	7.3	7.3	7.6
2003	0.7	1.4	7.7	8.0	8.6	8.2	8.8
2004	0.9	1.7	7.9	8.3	8.8	8.6	9.1
2001. 1/4	0.7	2.2	8.9	9.5	10.1	10.0	10.6
2/4	0.8	1.7	7.1	7.5	8.1	7.8	8.4
3/4	0.8	1.5	6.7	7.0	7.5	7.2	7.8
4/4	0.8	1.4	7.2	7.5	7.9	7.8	8.2
2002. 1/4	0.8	1.3	7.8	8.4	8.7	8.7	9.1
2/4	0.7	1.1	6.3	6.6	7.0	6.9	7.2
3/4	0.8	1.1	6.0	6.4	6.8	6.7	7.1
4/4	1.0	1.0	6.4	6.5	6.7	6.7	6.9
2003. 1/4	0.6	1.2	8.4	8.7	9.2	8.9	9.4
2/4	0.7	1.4	7.3	7.6	8.1	7.8	8.3
3/4	0.7	1.4	7.0	7.4	8.2	7.7	8.4
4/4	0.7	1.6	7.9	8.2	8.8	8.5	9.1
2004. 1/4	0.9	1.8	8.9	9.3	9.9	9.6	10.1
2/4	0.9	1.5	7.7	8.1	8.5	8.4	8.9
3/4	0.9	1.7	7.2	7.5	8.1	7.9	8.4
4/4	0.9	1.6	7.7	8.1	8.8	8.4	9.0
2005. 1/4	0.9	1.7	8.6	9.1	9.7	9.3	10.0
2/4	0.8	1.4	7.4	7.8	8.3	8.1	8.6
3/4	0.9	1.4	6.7	7.0	8.3	7.9	8.5

주: 표 21의 내용과 동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부록 6> 만족도 조사 설문지

「THE HRD REVIEW」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국내외 이슈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분기별 전문 동향분석지 「THE HRD REVIEW」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는 「THE HRD REVIEW」紙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다유익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동향분석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저희 「THE HRD REVIEW」 紙를 읽어보시면서 평소에 느끼셨던 생각들을 본 설문지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THE HRD REVIEW」 紙의 개선에 적극 반영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정보통계센터 동향정보팀 일동 전화: 02) 3485-5254 E-mail: jyum94@krivet.re.kr

※ 아래는 인적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 분	내 용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소속기관	① 정부부처 ② 국회 및 산하 위원회 ③ 공공기관 ④ 민간기관(기업 및 단체, 연구소 등) ⑤ 교육기관(초등학교~대학원) ⑥ 식업훈련기관 ⑦ 기타(학회, 언론사, 도서관 등)
직 위	

※ 다음의 각 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 란에 V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THE HRD REVIEW」 ା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면?)
	① 정책정보의 습득	② 현 시점에서의 주요 이슈 파일	}-
	③ 연구동향의 파악	④ 학술정보의 습득	
	⑤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 정보	
	⑥ 기타 ()	

- 2. 1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구독 목적에 비추어 볼 때,「THE HRD REVIEW」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3. 「THE HRD REVIEW」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 ② 대체로 적절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 4. 「THE HRD REVIEW」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 ② 대체로 적절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5. 「THE HRD REVIEW」	의 내용 중	어느 항목	에 관심을	가지고 계~	십니까? (복		
수응답 가능)							
① 특집이슈 ② 인적자원개발 동향 ③ 연구논단							
④ 인적자원개발 일기	지 ⑤ 인조	석자원개발	통계				
6. 「THE HRD REVIEW」에 수록된 내용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항목	만족도 나는 나는 나라도 내용되고						
① 특집이슈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② 인적자원개발 동향							
③ 연구논단							
<u> </u>							
⑤ 인적자원개발 통계							
7) —ໄ⇒ໄ⊲ໃນ	-11 .1 41 :	0 11-01-11	ിയില് വി-	-1 -1 ·1 · 1 · 10		
7. THE HRD REVIEW 9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결	(5) II	내우 불만족		
8 THE HRD REVIEW.	ഠി വികികി	츠기.헤 6 명	치느 브라	ا ماهادا	이디며 마쓰		
8. 「THE HRD REVIEW」의 내용에 추가했으면 하는 분야나 내용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							
()		
9.「THE HRD REVIEW」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							
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저자 약력

- · 강경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김종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ㆍ홍광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윤 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엄준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김민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2005)

- · 발행연월일 | 2005년 12월 30일 인쇄 2005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김장호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주)서보미디어(02)2253-7800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매품>

제1차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05)이 5년차까지 시행되면서 정부 각부처별 다양한 인적자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정부 각 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과 이슈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연구사업은 도입·확립·발전의 3단계 계획하에 본 원의 상시적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올해를 확립단계로 설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사회적 현안을 선도하고, 대정부 부처의 인적자 원개발정책의 니즈를 수용하여 동향정보팀을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웨어 하우스(warehous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및 가공시스템 구축', '인적자원개발정 책 관련 정책·연구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그리고 '이 슈페이퍼 작성' 등 4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THE HRD REVIEW」,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의 발간, KRIVET 홈페이지 및 NHRD-Net에 콘텐츠 제공, 원내 서버에 통계청, 노동부 등 국가통계조사 원자료 및 각종 실태조사 원자료의 구축을 통한 원내 연구자들의 이용 기반 구축 등의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내용

- 매월 인적자원개발 동향분석
- THE HRD REVIEW 발간
- 인적자원개발지표 발간
- NHRD-Net 자료제공